



은봉황첩지 · 은개구리첩지 銀鳳凰疊紙 · 銀蛙疊紙

19세기 말 ~ 20세기 초

# 장 신 구

쓰  
게

---



### 38 화관 花冠

Hwagwan. Ornamental Coronet

19세기 말

가로9cm 세로12.5cm

화관은 여성용 예모禮帽의 일종으로 관모보다는 장식의 성격이 강하다.

이 화관은 의친왕비(義親王妃)의 것으로 정면에 희자문囍字紋 옥판을 달아 꾸미고, 정수리에는 옥봉황을 중심으로 산호, 비취, 진주 등으로 꾸몄다.

뒷면에는 비취모翡翠毛를 붙이고 진주를 달아 장식한 화관 금비녀(金簪) 1쌍이 꽂혀 있다.



### 39 화관 花冠

Hwagwan. Ornamental Coronet

19세기 말

가로10.5cm 세로14cm

조선말기 응주용 화관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정면에 수지문壽字紋 옥판과 비취 장식을 달아 꾸미고

정수리에는 봉황을 중심으로 산호, 비취, 마노, 옥 등으로 꾸민 봉을 세웠다.

파란(琺瑯) 죽잠竹簷에 떨쇠를 달아 장식한 화관비녀 1쌍이 꽂혀 있다.



#### 40 옥로정자 玉鷺頂子

Okro-jungja. Hat Ornament with White Heron and Lotus Leaf Design  
19세기

높이 5.5cm 지름 5cm

갓(笠子) 위에 딴는 해오라기 모양의 옥정자이다. 조선시대 말기 시임時任, 원임原任 대신이 외국에 사신으로 나갈 때 갓 위에 착용하였다.

옥정자는 형태가 다양한데 옥로정자는 그 가운데 가장 상징적이다.

정자의 재료는 계층에 따라 달라 옥을 쓸 수 있는 계층은 사현부, 시간원, 관찰사, 절도사 등이다. 백로와 연잎을 입체적으로 조각한 것이 돋보인다. 일암관 소장



#### 41 동곳 · 관자 貴子

*Donggot · Gwanja.*

Hairpin placing a Topknot Cover.Silver

Buttons holding Men's Headband, Manggeon, with Dragon Design. Gilt.

19세기

동곳 - 높이1.5cm 너비6cm / 관자 - 지름2cm 두께0.5cm

동곳은 상투가 풀어지지 않게 고정시키는 장신구이다.

이 유물은 약간 굽은 형태이며 은으로 되어 있고 끝에 소화문이 장식되어 있다.

관자는 권자圈子라고도 하며 망건의 양 옆에 달아 당줄을 끼어 거는 작은 고리로

신분에 따라 관자의 재료를 달리하였다. 반옹문 새겨져 있는 이 도금 관자는

종2품의 유품과 비슷하다. 일암관 소장



#### 42 상투관 上套冠

Sangtu-gwan. Decorative Topknot Cover

19세기

높이18.5cm 둘레21cm 함 가로10cm 세로7.7cm 높이10.3cm

상투관은 조선시대 상투에 쓰던 관으로 상투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예의가 아니라 하여 사용한 것이다. 서각으로 되어 있는 이 상투관에는 현무, 학, 소화당초문 등이 조각되어 있다. 일암관 소장





### 43 굴레보관함

Container and Stand of Gulle.

19세기

높이 30.9cm 둘레 62cm

굴레를 보관하는 함이다. 종이와 여러 겹의 한지를 배접하여 만들었으며 팔각형의 기둥형태이다.

함의 각 면에는 천도 가자를 물고 있는 학과 노루가 지공예로 표현되어 있으며 만초문과 기하문으로 8면을 둘렀다.

윗부분에는 태극문과 소화문이 지공예로 장식되었고 맨 윗면에는 둥근 고리가 있는데

고리 밑에 이화문李花紋 판이 있어 왕실의 위엄이 보인다. 내부에는 굴레를 씌워 둘 수 있는 머리모양의 받침이 있는데,

이 함 내부에 굴레를 접어 보관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받침의 윗부분 정중앙에 덮개와 같이 붉은색

이화문양이 그려져 있다. 굴레보관함은 처음 공개되는 것으로 그 실용성과 장식성이 매우 뛰어나다. 일암관 소장







굴레보관함의 안쪽에 적혀 있는 글자들은 원래 글을 썼던 종이를 재활용하여 붙이면서 들어가게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유물과는 무관하고, 몇몇을 제외하면 글귀들이 짤막짤막하게 끊어져 완성된 문장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의미를 알기도 어렵다.  
다만 중국 고대 음악의 곡조로서 1년 열 두 달을 표시하는 데 사용되었던 십이율(十二律)과 주역(周易)의 괜(卦) 이름들이 들어 있는 것으로 보아, 역학(曆學)이나 역리(易理)에 관한 내용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 44 굴레

Gulle. Children's Embroidered Bonnet for Winter  
19세기

길이25.5cm 둘레32.5cm

남녀 아이들의 방한과 장식용 쓰개로 검은색 공단에 모란과 연꽃 등  
부귀 영화와 무병장수를 상징하는 꽃을 풍성하게 수놓았다.

정수리에는 호박으로 된 매미, 구슬 장식 등을 만들어 달고  
색실과 자수로 된 화판으로 꾸몄다. 목다리 끝에는 느림댕기를 별도로 달아  
뒤로 젖혀 묶었을 때 안쪽에서 보이는 꽃과 나비의 수가 화려하다. 일암관 소장



## 45 조바위

*Jobawi.* Women's Bonnet for winter

20세기

길이18cm 너비25cm

조바위는 조선시대 양반층에서 서민에 이르기까지 널리 사용된 여성의 방한모의 하나이다.

겉감은 검은색 문단, 안감은 쪽색 면으로 만들고 볼을 덮는 부분의 청색 공단으로 선을 들렀다. 연꽃, 모란, 국화, 영지, 나비 등이 화려한 색채로 가득 수놓아져 있다. 앞뒤에 술을 달았던 자국만 남아 있다. 일암관 소장



#### 46 족두리 簪頭里

Jokduri. Ceremonial Coronet decorated with Jewellery

19세기 말

가로10cm 세로10cm 높이5cm(앞) 6.5cm(뒤)

조선 후기 여성용 예관의 하나로 원삼 또는 당의와 함께 착용하였다.

궁중에서는 의례용으로 민간에서는 혼례 또는 부모님 회갑 등의 대례에 사용하였다.

조선시대 여성용 예관禮冠의 하나로 장식을 하지 않은 것을 민족두리,

위, 중앙, 옆면에 옥석玥石으로 꾸민 것을 꾸민 족두리라고 한다.

이 유물은 검은 비단으로 만들고, 정면에 밀화 장식중앙에 산호, 밀화, 비취, 진주로 꾸민 봉을 1개만 세운 소박한 형태의 꾸민 족두리로 소론 집안에서 사용한 것이라고 한다.



#### 47 족두리 簇頭里

*Jokduri.* Ceremonial Coronet decorated with Jewellery  
20세기

가로13cm 세로13cm 높이9cm

종이로 틀을 만들고 배접한 후 검은 공단으로 쌓 모양의 홀족두리로 각족두리라고도 한다.  
상부에는 옥판과 구슬로 장식한 봉이 5개 있는 오봉족두리로 족두리의 정면과 측면에도  
구슬장식이 있다. 보통 홀족두리는 상부에만 장식을 하여 솜족두리에 비해 단출하지만  
이 유물은 훈례용으로 다른 홀족두리보다 매우 화려하다.  
홀족두리는 소론가의 부녀자들이 주로 착용하였기 때문에 일명 소론족두리라고 한다.





#### 48 족두리 簇頭里

Jokduri. Ceremonial Coronet decorated with Jewellery  
20세기

가로12cm 세로11.3cm 높이5.4cm(앞) 6.6cm(뒤)

자주색 공단을 일곱 조각 이어 만든 숨족두리와 놋쇠로 만든 족두리 밭침이다.

옻으로 깍은 화판 위에 비취, 금파, 산호 밀회를 세운 봉을 중심으로 옻, 비취, 산호, 호박을 세운 4개의 봉을 배치한 오봉족두리이다. 석옹황과 진주로 앞뒤를 장식하고, 옆면에는 금파 매미를 달고, 정면에는 비취장식과 다섯 개의 진주와 산호 구슬에 작은 봉술을 연결하여 늘어뜨려

화려하고 풍성한 느낌을 주는 족두리이다. 조선말기에는 가문에 따라 족두리의 형태가 달랐다고 하는데 노론집안은 숨족두리를, 소론집안은 각족두리를 사용하였다.

궁중발기宮中發記에 공주나 응주는 목단색 공단 족두리를 썼다는 기록이 있다. 일암관 소장



# 장 신 구

비  
녀

---



#### 49 산호매화잠

Binyeo. Hairpins with Plum Blossom Design. Coral.

19세기

길이 15.3cm

산호의 자연스러운 모양을 그대로 살려 매화와 만초를 양각한 비녀로  
순정효황후가 사용하던 것이다.





## 50 비취 민비녀 · 귀이개 뒤꽂이 翡翠簪 · 翡翠耳子簪

Binyeo · Gwiigae. Hairpin · Ornamental Earpick Hairpin. Green Jade.

19세기 말~20세기 초

길이 11cm 8cm

짧고 무늬가 없는 민잠은 평상시에 사용하던 것이나 비취로 된 것은

주로 여름에 외출할 때나 특별한 날에 사용하였다. 귀이개 뒤꽂이는 본래 귀지를 파는 용구에 장식을 더하여 만든 것으로 실용성과 장식성을 함께 갖춘 뒤꽂이이다.



## 51 비취잠 翡翠簪

*Binyeo.*

Ordinary Hairpin and Hairpins with Birds and Plum Blossom Design. Green Jade

19세기

길이 16.5cm 12.5cm

고운 빛깔의 비취 민잠과 매화와 새를 투각한 비녀로  
반가의 여인들이 여름 나들이에 사용하였다.



## 52 백옥잠 白玉簪

*Binye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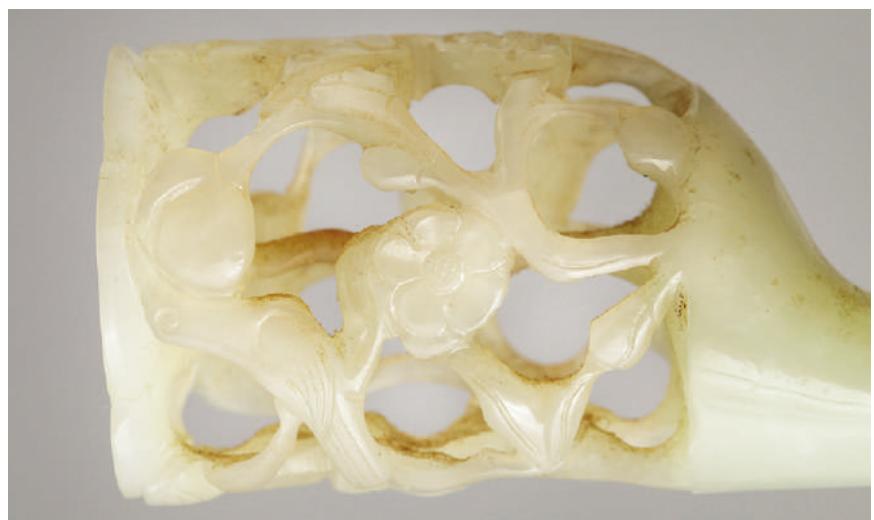
Hairpins with Bamboo, Plum Blossom,

Pomegranate Design. White Jade

19세기

길이 24cm 26.5cm 27cm

여름철 반가의 여자들이 외출 시 사용하였던 비녀로 잠두에 매죽문, 매조문, 석류문, 만초문 등을 정교하게 조각하여 단아하면서도 화려하다. 일암관 소장





53 은파란매죽잠 銀琺瑯梅竹簪

*Binyeo.*  
Hairpin with Bamboo and Plum Blossom Design.  
Coral, Silver and Enamel

19세기  
길이18cm

물총새 깃털을 붙인 대나무잎과 산호 박힌 매화꽃, 땃잎 사이사이의  
산호 꽃봉오리들이 파란과 어우러져 조형적 구성이 아름답다.  
파란 비녀는 주로 가을 겨울에 많이 사용하였다. 일암관 소장

54 은파란호두잠 銀琺瑯호두簪

*Binyeo.*  
Hairpin with Walnut-shaped Head. Coral, Silver and Enamel  
19세기  
길이25.5cm

호두 모양의 잠두는 파란으로 매화와 새梅鳥紋를 화려하게 장식되었고  
산호로 꼭지를 박아 조출하면서도 아름다운 비녀이다. 일암관 소장





### 55 은파란매죽화문잠 銀琺瑯梅竹花紋簪

*Binyeo.*

Hairpin with Bamboo, Plum Blossom Design.

Coral, Silver and Enamel

19세기

길이 30cm

파란으로 장식한 대나무 잎과 산호 박힌 매화꽃들과 꽃봉오리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매죽 비녀로 상당한 신분의 부인이 명절이나 경사에 사용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잠두의 밑부분, 목부분과 끝부분에도 파란으로 만초문을 장식하여 더욱 화려하다. 일암관 소장



## 56 용잠 · 은파란죽잠 龍簪 · 銀琺瑯竹簪

*Binyeo.*

Hairpins with Dragon Design. Gilt.

Hairpin with Bamboo Design. Coral. Silver and Enamel

19세기~20세기

길이 39.5cm 35cm 33cm 41cm

비녀머리에 웅무늬를 조각하거나 용장식을 부착한 비녀이다. 주로 왕족이 사용하였으나 사대부 집에서도 훈례 등의 의식 때 큰머리에 꽂았다. 보통 비녀보다 길이가 길어 댕기를 양쪽에 감아 앞으로 늘인다.

은파란죽잠은 비녀 머리에 파란(琺瑯)으로 대나무를 형상화하여 장식하였다.

댓잎 사이의 공간에는 학을, 비녀 머리 윗부분에는 한 쌍의 봉황을 앉혔으며 훈례용으로 사용되었다.







## 57 떨잠 翩珞簪

*Treoljam.* Hairpin with Fluttering Ornaments

19세기

길이 11.3cm 11.1cm 9.9cm 폭 5.7cm 5.6cm 6.5cm

금과 옥으로 만든 떨잠이다. 떨잠은 왕족과 양반에 한하여 사용된 것으로 의식 때 어여머리나 큰 머리에 꽂는 장식품으로 머리 중앙과 양편에 꽂는다.  
세 점 중 두 점은 둥근 형태이고 한 점은 나비형태인데, 모두 꽂는 부분은 금으로 만들고,  
장식 부분은 옥 위에 다채로운 장식을 하였다. 장식부는 옥판 위에 금과 산호,  
공작석, 진주, 밀화 등 여러 가지 보석과 철보로 장식하고 봉황과 나비 모양의 떨쇠를 달아  
움직일 때마다 흔들리도록 하여 더욱 화려하게 장식하였다. 일암관 소장









## 58 장잠 長簪

*Jangjam.* Long-Hairpin. Jade. Silver and Enamel  
19세기

길이 26.8cm 너비 6.3cm

은과 옥으로 만든 뒤꽂이이다. 뒤꽂이는 모양과 크기에 따라  
의식용 큰머리에 사용하기도 하고, 평상시 쪽진 머리에 장식을 하기도 하였는데,  
쪽진 머리가 비녀에서 훌러내리지 않게 고정시켜 주는 역할을 하였다.  
장식부와 꽂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장식부는 얕고 넓은 옥을  
화려하게 조각하고, 그 위로 파란(琺瑯)으로 채색한 구슬들을 붙여 장식하였다.  
꽂는 부분은 은으로 제작하였는데, 장식부와 연결되는 부분은 파란으로  
초화문草花紋을 다채롭게 장식하였다. 일암관 소장

## 59 원잠 圓簪

*Wonjam.* Hairpin with Pearls Decoration  
길이 11.5cm 지름 6cm

동근 옥판 위에 굵은 금사를 휘어감아 줄기와 꽃이 보석을 감싸  
안았으며 중앙에 진주로 장식된 활짝 핀 꽃을 배치하고  
둘레에 진주 꽃봉오리를 정교하게 배열한 장식용 비녀이다.  
머리의 앞이나 옆에 쌍으로 꽂았다. 일암관 소장





장 신 구

지  
환

---



## 60 지환 指環

Jihwan. Rings. Silver, Brass, Copper

19세기

평균지름3cm

장수와 부귀영화, 자손번창을 염원하는 박쥐와 모란 매화 등을  
음각한 쌍기락지와 파란으로 장식한 쌍기락지이다.

쌍기락지는 이성지합 부부일심의 상징하는 징표로 결혼한 여자들만  
사용할 수 있었고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은 반지를 사용하였다. 일암관 소장





장 신 구

노  
리  
개

---



### 61 도금투호삼작노리개 鎏金投壺三作佩飾

Samjak-Norigae. Pendent with Three Ornaments in Jar Shape. Gilt  
19세기 말~20세기 초  
길이 22cm

순정효황후純貞孝皇后가 사용하던 노리개이다.  
도금된 투호병 장식에 매듭과 술이 달린 형태의 삼작노리개이다.  
오륜대 한국순교자박물관 소장



## 62 실술노리개 佩飾

Silsul-Norigae. Pendant with Three Ornaments  
and Yarn Tassels in Three Colors. Coral. Malachite. Jade  
19세기 말  
길이 38.5cm

조선말기 왕비가 쓰던 것으로 산호珊瑚, 공작석孔雀石, 옥을 투각하여  
오복 광주리 문양을 만들고 흥색, 청색, 황색의 실술을 달았다.  
실술은 궁에서만 사용하는 것으로 아랫 부분은 풀로 고정하였다.





### 63 대삼작노리개 大三作佩飾

Daesamjak-Norigae. Large Pendant with Three Ornaments.

Amber. Jade. Coral

19세기

길이39cm

대삼작노리개는 노리개 중 가장 호화롭고 큰 것으로 왕실에서 가례나 혼례시 원심이나 활옷같은 예복의 대대大帶에 걸어 착용하였다.

주로 붉은 산호가지와 옥나비 한 쌍과 밀화덩어리에 각양의 매듭과 술로 구성된다.

꽃가지가 휘어져 장식 된 우람한 밀화 덩어리와 화려하게 장식된 옥나비 한쌍, 산호가지가 짹을 이루는 대삼작 노리개로 흥, 황, 청색 낙지발술을 달아 장식하였다.



#### 64 대삼작노리개 大三作佩飾

Daesamjak-Norigae. Large Pendant with Three Ornaments.

Amber, Jade, Coral

19세기

길이 41cm

벌레와 배추모양으로 조각된 호박, 비취, 산호 주체를

한 다발 꽃장식으로 연결한 독특한 구성의 대삼작노리개로

희iscal가 음각된 옥항아리 모양의 따돈과 낙지발술로 연결되어 있어 화려하다.



### 65 대삼작노리개 大三作佩飾

Daesamjak-Norigae. Large Pendant with Three Ornaments.

Jade. Coral. Amber

19세기

길이 37cm

나비형의 옥 한 쌍, 모란꽃을 조각한 호박, 산호가지로 짹을 이루어 만든 대삼작노리개이다. 한 쌍의 백옥 나비판에는 굵은 금사와 물총새 깃털로 장식하였다.  
호박에는 모란꽃을 섬세하게 새겼고, 산호의 몸통부분에 금판으로 만든 매미를 씌워 매듭과 연결하였다. 술은 황, 청, 흥색의 낙지발술로, 하단부에 금사를 감아 화려함을 더했다. 일암관 소장



## 66 은파란투호삼작노리개 銀琺瑯投壺三作佩飾

Samjak-Norigae. Pendant with Three Ornaments in Jar Shape.

Silver and Enamel

19세기

길이 36.5cm

궁중놀이 기구인 투호投壺 항아리의 모양을 본 떠 만든 투호 노리개이다.

각각의 은제 투호에는 복福, 도안화된 수壽자, 화문을 파란으로 화려하게 장식하였다.

투호의 윗부분은 산호를 감입嵌入한 화엽형花葉形으로 장식하였다.

술은 미미, 적, 남색의 쌍봉술을 달았으며 각각의 술에는 희, 수복, 부귀 등의

길상문자를 넣었다. 일암관 소장



### 67 은파란삼작노리개 銀琺瑯三作佩飾

Samjak-Norigae. Pendent with Three Ornaments. Silver and Enamel

19세기

길이37cm

소삼작노리개로 매미와 해태, 을자형은장도乙字形銀粧刀, 가위와 자, 인두 등을 달아 실용적인 기능과 장식적인 기능을 겸하였다. 각각의 장식은 파란으로 화려하게 장식하였다. 술은 적, 황, 남색의 쌍봉술을 달았으며 각각의 술에는 수복壽福, 희복, 부귀富貴 등의 길상문자를 넣었다. 일암관 소장



### 68 은파란삼작노리개 銀琺瑯三作佩飾

Samjak-Norigae. Pendant with Three Ornaments. Silver. Enamel

19세기

길이 32.5cm

파란을 군데 군데 입힌 호랑이와 방울, 산호를 박은 천도로 장식한 삼작노리개로  
영지가 새겨진 은 띠돈과 청, 황, 적색 병아리 매듭과 낙지발술로 연결되어 있다.



### 69 삼작노리개 三作佩飾

Samjak-Norigae. Pendent with Three Ornaments.  
Jade. malachite. Amber. Silver.

19세기  
길이28cm

비취모가 붙어있는 매화꽃 모양의 은제 연결고리로 장식된  
탐스러운 백옥, 매미가 양각된 밀화, 연꽃이 새겨진 공작석이 몸체를 이루고  
낙지발 술과 연결되는 아름다운 구성의 노리개이다.  
유교에서 매미는 덕을 의미하는 숭상받는 곤충이다.



## 70 금파삼작노리개 錦貝三作佩飾

Samjak-Norigae. Pendant with Three Ornaments. Amber

19세기

길이 32cm

금파로 된 삼작노리개이다. 국화매듭과 세벌감개매듭으로 연결되었으며  
삼색의 이봉술이 달려있다. 주체의 위, 아래는 금파 구슬로 연결하였다. 일암관 소장







### 71 밀화삼작노리개 蜜花三作佩飾

Samjak-Norigae. Pendant with Threel Ornaments. Amber  
19세기  
길이 24cm

밀화로 만든 나비가 주체인 삼작노리개이다.  
벌매듭과 세별감개매듭이 연결되어 있고 삼색의 달기술이 달려있다.  
밀화로 된 나비모양의 띠돈이 정교하다. 일암관 소장



## 72 호박삼천주노리개 琥珀三珠佩飾

Norigae. Pendant with Three Balls and Beads on One Strain. Amber

19세기

길이 37cm

삼천주 노리개는 불교의 세계관인 삼천대천세계三千大天世界를 상징하는데,  
이는 우주와 그에 따른 삼라만상의 질서와 섭리를 뜻한다.  
장수를 기원하는 수壽자를 조각한 네 개의 둥근 원을 중심에 두고 다산과 벽사를 상징하는  
박쥐로 주위를 감싼 호박구슬 세 개를 한 줄에 퀘어 만든 단작노리개로  
호박의 색과 시문된 조각이 돋보인다. 경사스러운 날 사용하였다. 일암관 소장





### 73 옥향갑노리개 玉香匣佩飾

Hyanggap-Norigae. Pendants with Incense case. Jade  
19세기

길이33cm(右) 33.5cm(左)

백옥에 정교한 투각을 하여 붉은색 비단을 덧대고 향을 넣은 단작노리개로  
붉은 색에 어우러진 옥 조각이 돋보인다. 둥근 옥향갑노리개는  
금파와 산호구슬로 연결하였다. 국화매듭과 세별감개매듭으로 연결되었으며  
이봉술이 달려있다. 향갑에 넣는 사향은 상비약으로도 쓰여  
실용과 장식을 겸한 조상들의 염염함을 느낄 수 있다. 일암관 소장



## 은제 칠작 노리개 銀製七作佩飾

총 일곱 가지의 노리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만든 형식이 매우 유사하여 원래 하나의 세트로 되어 있으며, 이들을 묶어주는 띠돈은 사라진 것으로 추정된다. 일반 부녀자들의 장식용으로 사용되는 단작單作, 삼작三作 노리개와는 달리, 오작, 칠작 노리개는 일반적인 부녀자의 장식보다는 의식용으로 사용되거나 집안의 가보로 대물림 되는 것이 많다. 노리개 중에 대한제국기 왕실을 상징하는 오얏꽃 문양梨花文이 있는 것으로 보아 민가보다는 왕실이나 그에 준하는 지체 높은 가문에서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 74 은제 공작 노리개 銀製孔雀佩飾

Norigae. Pendant with an Ornament in Peacock Shape. Silver  
대한제국 20세기  
길이 34.0cm

노리개에는 주체의 따돈, 매듭, 술, 끈목 등으로 구성되는데,  
주체에 여러 형태가 나타난다. 주체에 나타나는 형태들은 장식과  
길상吉祥을 뜻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 노리개의 주체인 공작은  
특별한 길상성이 없어 아마도 장식적인 효과를 나타내고자 했던 듯 하다.  
주체에 공작 두 마리를 쌍으로 놓았으며 위에는 화엽花葉으로 장식하였다.



### 75 은제 나비 노리개 銀製蝴蝶佩飾

Norigae. Pendants with an Ornament in Butterfly Shape. Silver  
대한제국 20세기  
길이 33.5cm

나비는 노리개의 대표적인 장식 중 하나로 주로 부부금실을 상징하여 혼례 등의 예식 때 사용되곤 하였다. 은제로 만든 꽃장식 아래에 나비 모양의 주체를 달았다.

다른 노리개와의 비교, 붉은 색의 낙지발술을 사용한 것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왕실이나 지체 높은 가문의 혼례용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 76 은제 방아다리 노리개 銀製方아다리佩飾

Norigae. Pendant with an Ornament in Mill Pestle Shape. Silver  
대한제국 20세기  
길이 34.0cm

방아다리 노리개는 귀이개, 이쑤시개 등 실용적인 기구를 한데 묶어서 만든 것으로, 그 모양이 방아개비와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실용적인 기능은 없어졌고, 이 노리개와 같이 장식적인 기능이 강조되었다.

귀이개, 이쑤시개로 되어 있는 주체 상단에 화엽花葉으로 장식하였는데, 특히 대한제국기 왕실에서 사용했음을 보여주는 오얏꽃梨花 문양이 있어 특징적이다.



### 77 은제 장도 노리개 銀製長刀佩飾

Norigae. Pendant with a Dagger. Silver

대한제국 20세기

길이 33.5cm

장도는 원래 남녀공용으로 사용하는 실용적인 용도였으나  
조선 후기 이후 장식성이 강조되어 절개를 상징하는 여인들의  
노리개 장식의 일부가 되면서 화려한 장도가 다양하게 만들어졌다.  
특히 노리개에 찬 것은 패도(佩刀)라 불리기도 하였다.  
은으로 전형적인 장도 형태를 만들고 그 위에 각종 꽃문양을 장식하여  
장식성을 더하였다.



### 78 은제 니사향갑 노리개 銀製泥絲香匣佩飾

Norigae. Pendant with an Incense Case. Silver

대한제국 20세기

길이 34.0cm

은사로 섬세하게 엮어 만든 형태로 만든 갑 안에 향을 넣는 향갑 노리개이다. 향갑은 은사를 꼬아 여의문如意文 바탕으로 만들고 중앙에 도안화된 꽃문양을 장식하였다. 향갑 안에 사향, 부용향, 옥추단 등을 넣어 여름철 부녀자들이 많이 사용하곤 하였다. 향갑 윗부분에는 은으로 매화와 화엽花葉을 장식하였다.

### 79 은제 범발톱 노리개 銀製虎爪佩飾

Norigae. Pendant with an Ornament with stylized Tiger Claw. Silver

대한제국 20세기

길이 35.0cm

은으로 호랑이 발톱 모양 두 개를 마주 대어 배치한 범발톱 노리개이다. 범발톱 위에는 은으로 투호 장식을 하여 화려하게 꾸몄다. 범발톱은 액을 막는 의미가 있으며, 이는 호랑이가 악귀와 잡신을 물리치는 산신으로 여겨져 액을 막아 준다는 믿음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원래는 범발톱을 이용하여 만들었지만 이처럼 은이나 쇠뿔 등을 이용하여 만들기도 하였다.



### 80 은제 용장식 노리개 銀製龍文佩飾

Norigae. Pendant with an Ornament with Stylized Dragon Head. Silver  
대한제국 20세기  
길이34.0cm

은으로 만든 화형花形 고리에 용머리를 장식하였다.  
은제 고리로 술과 연결하였으며 술은 붉은 색의 낙지발술을 달았는데,  
이는 상류층에서 주로 사용했던 것이다.  
옹은 왕실이나 지체 높은 집안을 상징하며 액厄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 조선 왕실의 혼례

**왕** 은 왕세자 시절인 15세 전후에 혼인을 했다. 왕세자빈의 나이 또한 왕세자와 비슷한 15세 전후였고 경우에 따라서는 연상도 많았다. 반면 정비 사망 이후 맞이한 계비의 경우는 왕의 나이는 고려하지 않고 15세 전후의 신부를 간택하였다.

왕실의 혼례에 앞서 국가에서는 전국에 금혼령을 내리고 결혼 적령기에 있는 모든 처녀들의 '처녀단자'를 받았다. 간택은 신부 후보 중에 신부감을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초간택, 재간택, 삼간택으로 3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나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지며 재간택과 삼간택이 생략되는 경우도 있다. 왕비 간택 시에는 먼저 상궁이 왕비로 예정된 처녀의 집으로 가서 당사자를 살폈다. 초간택에서 선발된 대여섯 명의 처녀들 중 두 세 명을 재간택하며 이어 최종적으로 한 명을 뽑았다.

삼간택에서 뽑힌 예비 왕비는 별궁에 모시고 왕비가 된 후에 지켜야 할 궁중 법도를 익히게 하는 한편, 가례 의식에 거행되는 순서와 행사를 준비하였다. 또한 별궁에서 왕비를 모셔오는 친영의식을 치름으로써 왕실의 위엄과 권위를 살리고 사가에서 국왕을 맞이하는데 따르는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가례도감에 나타난 별궁은 태평관, 어의궁, 운현궁 등 세 곳이다.

왕비감이 결정된 후에는 가례도감을 설치하고 순차적으로 납비의를 행하였다. 『국조오례의』에 의한 왕비를 맞이하는 의식은 택일, 납채, 납징, 고기, 책비, 명사봉영, 동뢰, 왕비수백관하, 전하회백관, 왕비수내외명부 조회로 구분된다. 택일은 좋은 날을 골라 종묘와 사직에 가서 왕비를 들이게 되었음을 고하는 의식이다. 납채는 장차 국구가 될 가문에 왕비로 결정된 사실을 알리는 절차이다. 왕은 대궐 정전에 나가 정사와 부사에게 교명문과 기러기를 주어 장차 국구가 될 가문에 전하게 했다. 교명문은 왕비로 결정된 것을 알리는 명령문이고 기러기는 이 가례가 평생 변치않을 것이라는 의미로 보내는 예물이다. 일반 사가의 혼례에서는 친영 때 신랑이 신부집에 기러기를 주었지만 가례에서는 왕비를 모시고 올 때는 물론 납채 때에도 보냈다. 납징은 교명문과 함께 비단 예물을 보내는 의식이다. 고기는 왕이 혼인 날짜를 알리는 예이다. 일반 사가의 혼인 날짜는 신부의 생리상황이나 혼례준비를 고려하여 신부집에서 잡았지만 왕실에서는 점을 쳐서 좋은 날을 정했다.

책비는 왕비를 책봉하는 의식으로 별궁에서 행하였고 궁궐에서 파견한 상궁들이 주관하였다. 책비 이후에는 상궁과 궁녀들이 왕비에게 대궐 안주인에 대한 예를 차려 네 번의 절을 올리고 이때부터 왕비로 인정되어 대궐의 상궁과 내시들이 모셨으며 행차를 할 때는 가리개인 산織과 선扇으로 그 위엄을 보였다. 책비는 오직 왕비의 가례에만 있는 절차였다.

명사봉영은 왕이 사신을 보내 별궁에서 대궐로 왕비를 맞이해 오는 절차로 사가의 친영에 해당한다.

동뢰는 대궐로 들어온 왕비가 그 날 저녁에 왕과 함께 술과 음식을 먹고 침전에서 첫날밤을 치르는 절차였다. 이 후에는 대비나 왕대비 등 왕실 어른을 뵙고 인사한 뒤에 조정 백관과 내외명부의 여성들로부터 인사를 받는 절차이다. (왕비수백관하, 전하회백관, 왕비수내외명부 조회 )

왕비가 정해진 후에 왕은 중국 황제에게 왕비 책봉을 요청하였다. 조선의 왕비는 중국 황제가 보내준 고명을 받음으로써 국내외적으로 지위가 공인되었다.

# Royal Marriage Customs of Joseon

**D**uring the Joseon period, the crown prince married at around the age of fifteen. The crown princess also married at around the age of fifteen, but in some cases, she did so at an older age than the crown prince. When the king remarried if his first wife passed away, he would choose a bride at the age of around fifteen regardless of his own age. When a royal marriage was planned, the “Order of Prohibition of Marriage (of the common people, while the selection of the future queen is in the process)” was declared, and a ‘report on virgins’ of all girls of marriageable age was received by the government.

The process to choose a bride for the king from among the candidates generally involved a first, second, and third screening. In cases where the king needed to be married in a very short time, only one screening might be done. To choose a prospective queen, a court lady would visit to the house of a girl on a list of candidates to determine if she were qualified. During the first screening were chosen five or six girls, among whom two or three were chosen for the second stage. The prospective queen was finally chosen from among these two or three.

The prospective queen was taken to a detached palace to be instructed in royal customs and etiquette, while arranging the royal wedding soon to take place. The custom of taking the future queen from a detached palace rather than her house outside the palace was a way to bolster the authority and dignity of the royal family and simultaneously preclude the bride’s family from having to bear the extremely expensive burden of receiving the king at their own home. According to *Garye-dogam*, which recorded the royal wedding, Taepyeong-gwan, Eoui-gung, and Unhyeon-gung were used as detached palaces during the Joseon period.

After the future queen was chosen, the Office of Royal Wedding was temporarily installed at the palace to make all necessary arrangements. The ritual to receive the queen was rather complex, involving customs called *Taegil*, *Napchae*, *Napjing*, *Gogi*, *Chaekbi*, *Myeongsabongyeong*, *Dongroe*, *Wangbisu-baekgwanha*, *Jeonhahoebaekgwan*, and *Wangbisu-naeoemyeongbu-johoe*.

*Taegil*: An auspicious day was selected for the ritual to report on the receiving of the queen at Jongmyo and Sajik shrines.

*Napchae*: This is a process to inform the future father-in-law of the king that his daughter was to be the future queen. The king presented himself at the main hall of the palace to hand the royal edict and wooden goose to his courtiers for delivery to his future father-in-law’s family. The royal edict was an

order that their daughter was selected as the future queen, and the goose was a gift that symbolized that this marriage would last for their entire lives. In a marriage of ordinary people, the groom presented the goose to the bride's family when he paid his first visit to the bride's home on the wedding day. But in a royal marriage, the goose was sent during this "*napchae*" ritual, as well as when taking the future queen to the palace.

*Napjing*: This is the ritual of sending silk as a wedding gift together with the royal edict.

*Gogi*: The king announces the day of his wedding. In a wedding of common people, the wedding day was chosen in consideration of the physiological condition of the bride to be or wedding preparation schedule. But in a royal wedding, the fortune teller decided an auspicious day.

*Chaekbi*: A ritual for the installation of the queen was held in the detached palace, and court ladies dispatched from the palace conducted the ritual. After the installation, all the court ladies bowed four times to extend every courtesy for the lady of the palace. After this ritual, the queen was attended by court ladies and eunuchs. The *chaekbi* procedure was done exclusively for the king's wedding.

*Myeongsabongyeong*: This procedure corresponds to the ordinary marriage custom of "*chinyeong*." The king sent envoys to take his queen to the palace from the detached palace.

*Dongroe*: After arriving at the palace, the queen shared wine and food with the king and had first night at the king's residential quarters.

Then, the queen visited the queen dowager and the elder members of the royal family and made big bows to them, after which the queen received greetings from all the government officials and their wives. These rituals were called *Wangbisu-baekgwanha*, *Jeonhahoebaekgwan*, and *Wangbisu-naeoemyeongbu-johoe*.

After the future queen was selected, the king asked the emperor of China for investiture of the queen. The queen of Joseon became officially recognized both at home and abroad upon receiving approval from the Chinese emperor.

## 조선 양반의 혼례

○ **우** 리나라의 전통혼례는 고려말에 들어온 주자가례를 기본으로 우리 현실에 맞게 도암 이재가 『사례편람』을 편찬해 이것이 혼례지침서 역할을 했으며 『주자가례』와 마찬가지로 의혼議婚, 납채納采, 납폐納幣, 친영親迎의 네 단계로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사례편람』과 같은 혼례 규범조차 현실과는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세속에서는 우리의 실정에 맞게 육례六禮로 조정해 시행했다. 이는 1) 혼담婚談, 선보기, 2) 납채納采 = 사주四柱보내기 3) 연길涓吉=택일擇日, 4) 납폐納幣, 5) 대례大禮=초례醮禮, 6) 우귀于歸 순이다.

혼담은 중매인이 처녀 총각의 집을 드나들면서 성사시킨다. 반가에서는 신랑신부의 아버지나 조부가 지인들과 편지 왕래를 통해 혼담이 오가기도 한다.

납채는 혼담이 오간 후 양가의 승낙을 받고 남자 쪽에서 여자 쪽에 공식적으로 혼인을 청하는 예이다. 이 때 청혼서와 남자의 사주를 보낸다. 사주를 보낼 때는 싸릿대를 쪼개어 사주 봉투를 끼우고 양 끝을 청홍실로 묶은 후 붉은 보자기에 싸서 복이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신부집에 보낸다.

연길 혹은 택일은 신랑측으로부터 청홍서나 사주를 받으면 신부 집에서 혼인날을 잡아 신랑 집에 택일단자를 보내는 절차이다. 택일단자는 봉투에 넣어 겉 전면에 '연길'이라고 쓴 후 신랑집에 보낸다.

납폐는 혼인의 증표로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혼서지와 폐백幣帛(청단과 홍단)을 넣은 함을 보내는 절차를 말한다. 폐백을 보내는 것은 서로 공경하여 부부의 분별이 있음을 밝히는 것이다. 청단, 홍단 두 필의 끝을 청실 홍실로 묶어 혼서지와 함께 함에 넣어 보냈다. 함은 붉은 보자기에 싸서 보내고 보자기의 네 귀를 맞추나 묶지는 않고 근봉謹封이라고 쓴 종이띠를 돌려 감고 무명 한 필로 끈을 만들어 어깨에 매도록 했다.

신랑이 혼례를 올리고자 신부 집으로 가는 것을 초행初行이라 한다.

신부 집에 들어설 때 부정을 퇴치하는 뜻에서 짚불을 놓아 신랑이 그것을 넘어야도록 한다. 신부 집에서는 대청이나 마당에 차일을 치고 병풍과 휘장을 둘러 초례청을 만들어둔다. 초례청에서 행하는 혼인식을 초례 또는 대례라고 한다. 신랑이 신부 집에 도착하면 신부 아버지에게 기러기를 바치는 예 즉 전안례를 행한다. 전안례에 쓰는 기러기는 한 마리로 화목, 정절, 질서의 상징이며 기러기와 같이 의리를 지키겠다는 서약의 뜻이다. 다음은 신랑신부의 교배례 후 합근례를 한다. 이는 초례상을 사이에 두고 신랑과 신부가 청실흥실을 드리운 표주박술잔에 술을 부어 마시는 의식이다.

합근례를 마치고 신랑신부는 첫날밤을 신부 집에서 보내는데 이를 합궁이라고 한다.

우귀 또는 신행은 대례가 끝난 후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가는 것으로 시집에 들어가는 의식이다. 신부가 혼인을 하고 신랑 집에 가서 사당배례를 하여 새 며느리를 맞아들였다는 것을 조상들께 알리는 의례 절차를 행한 뒤 시부모를 만나 뵙는 현고구례를 행한다.

근친이란 신부가 시집에 와서 생활하다가 처음으로 친정에 가는 것을 말하며 이 때 신랑이 동행을 한다. 근친을 다녀와야 비로소 혼례가 완전히 끝난 것이 된다.

## Marriage Customs of the Upper Class during the Joseon Period

An upper-class Korean wedding during the Joseon period was practiced according to *Sarye pyeollam* (Easy Manual of the Four Rites) compiled by Korean scholar Yi Jae (1680~1746), which records and describes important rites based on Family Rites of Zhu Xi written by Zhu Xi, a Neo-Confucian philosopher of Song period China. As does Family Rites of Zhu Xi, *Sarye pyeollam* spells out the family etiquette and customs for marriage in four stages: *uihon* (matchmaking), *napchae* (the groom's family sending *saju*, which tells the hour, day, month and year of the groom's birth), *nappye* (the groom's family sending a box called *ham* to the bride's family), and *chinyeong* (wedding ceremony actually being held). However, the process set forth in *Sarye pyeollam* was not closely practiced, and it was finally changed and divided into six rites to make it appropriate for the Koreans to practice during the Joseon period. The six rites were in the order of: 1) *hondam* or meeting each other with the intention of pursuing marriage; 2) *napchae* or sending *saju*; 3) *yeongil* or choosing an auspicious day; 4) *nappye* or sending a chest called *ham*; 5) *daerye* or the wedding ceremony; and 6) *ugwi* or *sinhaeng* taking the bride to her in-laws.

*Hondam*: A matchmaker arranges a marriage by visiting the houses of the prospective bride and groom. In upper-class families, the father or grandfather arranges the marriage by exchange of letters with friends.

*Napchae*: This is the formal process of the groom's family asking for marriage. After the two families agree to marry their children, the groom's family sends a letter formally asking for the marriage and *saju* "Four Pillars" (the year, month, day and hour of birth). The paper on which *saju* is written is put in an envelop. A stick of bushwood is tied to the envelope with long stands of red and blue threads. This symbolizes a strong relationship. The envelope is wrapped in a red *bojagi* wrapping cloth. The *saju* envelop is delivered to the bride's family by a person who is considered to have been given many blessings in life.

*Yeongil*: After receiving the groom's *saju*, the bride's family picks an auspicious day for the wedding and informs the groom's family of the day in writing. This letter is put in an envelop with the word 'yeongil' written on it in Chinese characters.

*Nappye*: As a token of marriage, the groom's family sends a chest called *ham* to the bride's family. The chest contains a letter of marriage proposal and bridal gifts, which include bolts of blue and red silk for the bride's costumes. The chest is wrapped in a red *bojagi* wrapping cloth. The four corners of the *bojagi* cloth are gathered together, but they are not knotted. Instead a paper strip on which is

written “geunbong 謹封” was used to tie the corners of *bojagi*. With a string made of cotton, the chest is bound so that it can be carried on the shoulder.

*Daerye*: On the wedding day, the bridegroom pays the first visit to the bride’s house for the wedding ceremony. The bride’s family places a straw mat in the front courtyard for the groom to cross to ward off bad luck. In the front courtyard under a tent screened off by curtains or in the main floored room, a folding screen is erected, a woven mat is rolled up, and a table is set up in preparation for the wedding ceremony. Upon arriving at the bride’s house, the groom presents a carved wooden goose to the bride’s father. The goose symbolizes happy marriage because geese mate only once and remain faithful to their mates for life. Then, the bride and groom exchange bows, which is followed a custom of sharing of cups. A wine cup made from a split gourd is used. It is bound with blue and red threads to symbolize unity. The bride and groom spend their first night together at the bride’s house.

*Ugwi*: After staying at the bride’s house, the groom takes the bride to her in-laws permanently. Upon arriving at the groom’s house, the bride pays respects to the deceased ancestors of her in-laws to inform them of the arrival of a new daughter-in-law. Then, the bride presents herself to her in-laws and relatives to receive their blessings in a tradition called *hyeon-gogurye*.

After months, or sometimes a year, the bride makes her first visit to her parents’ home. On this visit called *keunchin* in Korean, she is accompanied by her husband. This visit consummates the complex marriage process.

# 조선왕실의 적의(翟衣)

김 소 현

배화여대 전통의상과 교수

## 1. 개관

적의(翟衣)는 왕비, 세자빈, 대비 등 왕실의 적통을 잇는 여인만이 입을 수 있는 최고의 예복으로서 왕실의 권위를 상징하는 의복이다. 조선은 신분에 따라 착용할 수 있는 복식이 법으로 규정된 신분사회였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복식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오직 최고의 왕실여인이 입을 수 있는 적의의 제도에 대해서만 구체적인 용례의 규정이 있었다. 적의는 의복의 명칭인 동시에 대례복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왕·왕세자의 면복(冕服)에 대응하는 옷이어서 법복(法服)이라고도 불렸다. 조선의 개국으로부터 대한제국에 이르는 조선왕조 오백년간 적의제도에 몇 차례 변화가 있었지만 복식의 명칭과 적의가 갖는 권위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조선시대의 적의제도를 알려주는 유물은 없지만 국말에 황후와 왕비가 착용하던 적의가 남아 있어서 황실의 적의제도를 어림해 볼 수 있다. 1897년,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황제위에 올랐을 때 황후의 자리는 비어있었다. 그 후 1907년에 순종이 고종의 황제 위를 물려받으면서 황태자비였던 순정효황후 윤씨가 황후가 되었다. 윤씨는 순종이 1882년에 세자빈으로 맞았던 순명효황후 민씨가 1904년에 세상을 떠나게 되자 1906년에 13세의 나이로 황태자비가 된 인물이다. 세종대학교에 소장된 순정효황후 윤씨의 12등 심청색적의는 순종의 동생인 영친왕의 기미년(1919) 가례 시 조현례를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고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영친왕비 적의 역시 가례를 위하여 준비한 것이다. 영친왕은 고종과 순현황귀비 엄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로 1907년에 황태자로 책봉되었다. 1919년 1월 25일에 가례를 치르기로 예정되었으나 1919년 1월 22일 고종황제가 갑작스럽게 승하함으로써 연기되고 영친왕은 1920년 4월 28일 일본에서 흰 드레스 차림의 영친왕비와 혼인예식을 행했다. 그리고 2년 후 조선으로 돌아와 1922년 4월 28일에 민간에서의 폐백에 해당하는 조현례(朝見禮)[근현의(觀見儀)]를 행했다. 1910년의 한일합방으로 순종황제가 왕으로 강등되었지만 왕실 복식은 황제와 황후의 예로 갖추었고 기미년 가례를 위하여 윤황후를 위한 12등 적의와 영친왕비의 9등 적의를 준비했다. 1922년 영친왕비가 순종과 윤비를 알현하는 조현례에는 조선시대에 해오던 방식대로 영친왕비는 적의를 입고 인사를 올렸고, 인사를 받는 순종은 통천관과 강사포, 윤황후는 적의를 입었다.

세종대학교와 고궁박물관에 소장된 12등 심청색 적의와 9등 적의는 대한제국 이전에 조선에서 착용하던 적의와는 상당히 다른 특징을 보인다. 조선의 적의는 명나라 명부예복인 대삼제를 근거로 했지만 대한제국의 적의는 명나라 황후와 황태자비의 관복제도를 따랐기 때문이다. 대한제국 이전, 조선왕실의 적의제도에는 두 차례의 큰 변화가 있었다. 조선전기에는 명에서 보내온 군왕비 및 명부 1품에 준하는 왕비 관복을 원형 그대로 착용했다. 세월이 지나면서 명이 망하고 명에서 사여한 예복이 없어지자 국내에서 지어 입거나 그 부속품을 중국에서 구입하여 갖추어 입었다. 청이 들어섰어도 청의 제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점차 조선식으로 변화한 적의제도를 운영했다. 영조 27년(1751)에는 왕비, 세자빈, 세손빈의 적의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조선의 적의제도를 확립했다. 1897년에 고종이 나라 이름을 대한(大韓)으로 정하고 황제 위에 오르면서 모든 위계가 이등씩 높아졌고, 황후와 황태자비를 위한 심청색 적의를 마련하여 대삼제에 근거한 조선의 적의와는 다른 외양을 가진 적의 제도를 운영했다.

## 2. 조선 전기의 적의 - 명으로 부터의 사여 관복

조선에서는 예로부터 착용해오던 복식전통을 유지하는 동시에 명에 대한 청사(請賜)와 사여(賜與)관계를 고려하여 왕실여성의 관복제도를 운영했다. 처음 우리나라에 적의가 들어온 것은 고려 공민왕 19년 (1370)으로 명 태조비 효자황후가 보내온 칠휘이봉관(七翟二鳳冠)과 청색의 9등 적의였다. 이때는 명나라의 복식제도가 정비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송의 제도를 참고하여 조선에 왕비관복을 보내온 것으로 이해된다. 송의 후비복식제도는 황후, 황태자비, 명부의 제도만 규정되어 있어서 우리나라의 왕비관복을 어느 품계에 준하여 사여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황태자비의 복식제도와 명부 1품의 복식제도가 동일하므로 친왕비의 복식제도 역시 동일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명에서 조선의 왕에게 보낸 관복은 친왕례에 준한 것 이었기 때문에 명 태조(太祖) 효자황후(孝慈皇后)가 사여한 왕비관복은 친왕비례에 근거한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후 명에서 우리나라에 왕비관복을 보낼 때는 효자황후가 보낸 왕비관복을 전례로 삼되 송대 복식제도의 행간에 숨은 친왕비례를 끌어내지 않고 송대 명부 1품의 관복으로 해석함으로써 조선에 왕비 관복을 사여할 때면 명나라 명부 1품의 복식제도를 적용했다. 이러한 연유로 조선의 왕에게는 친왕례에 준하는 구류면 구장복을 보내고 왕비에게는 군왕비의 칠적관, 의복은 명부1품에 준하는 옷을 보내왔다.

조선에서는 왕실 여성의 관복을 적의, 명복(命服), 예복(禮服) 등으로 기록하고 명에서 보내온 왕비관복을 적의로 인식했다. 그러나 명에서는 홍무4년(1371)의 복식개정을 통해 외명부의 적의제도를 없앴기 때문에 명에서 사여한 왕비관복은 적의가 아니었다. 중국에서 조선에 사여한 왕비 관복에 대하여 『명사』에는 태종 방원에게 면복 구장(九章)과 더불어 비(妃) 주취칠적관(珠翠七翟冠), 하피, 금추 및 서적과 옷감 표리를 주었다는 기록이 있을 뿐이고, 『실록』의 왕비 사여품목에도 적의라는 기록은 없다. 그러나 조선에

서는 명으로부터 받은 왕비 관복을 왕의 면복에 대응하는 옷으로 여겨서 적의로 인식하고 친왕비례에 준하는 옷으로 알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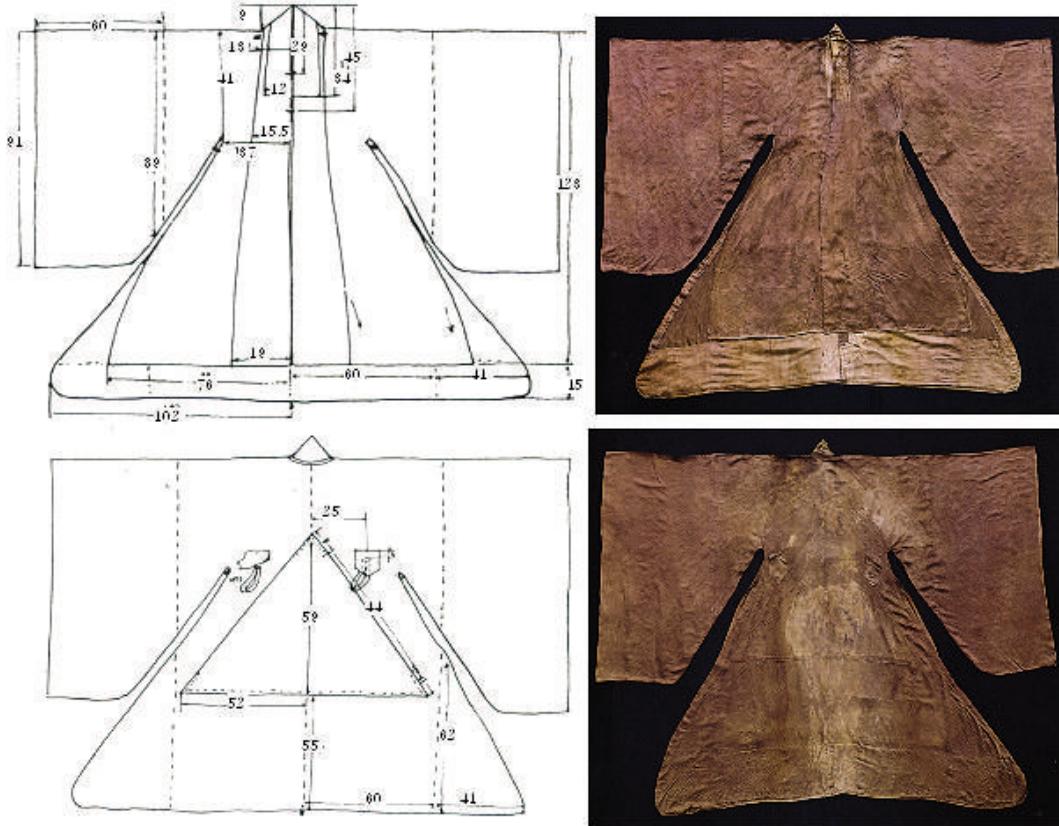
선조35년에 인목 왕후를 계비로 들이는 가례를 준비하면서 적의 제도를 상고하다가 비로소 명에서 사여한 왕비관복이 친왕비와 군왕비의 예에 비추어볼 때 온전하게 갖추어진 물목이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된다. 명에서 조선에 보내온 왕비관복은 대홍색 대삼, 청색 배자, 청색 하피, 상아홀이 일습을 이루고, 녹색 단삼, 홍색 오, 청색 군이 일습을 이루는 명부 1품의 예복과 상복이었다. 명나라의 명부 예복은 홍무24년, 26년에 개정된 바, 1품은 진홍색 대수삼, 심청색 하피, 심청색 배자, 상아홀로 이루어



〈그림1〉 기양왕 이문충의 첫 부인인 조국부인 필씨상(岐陽王 李文忠元配 曹國夫人 毕氏像), 中華歷代服飾藝術



〈그림2〉 임회후 이방진부인 양씨상(臨淮侯 李邦鎮夫人 楊氏像), 中華歷代服飾藝術



〈그림3〉 강서성 남창 우정왕부인 오씨묘 출토 대수삼과 도식화, 纺織品考古新發現

겼으며, 명부 상복은 안색(顏色)[제색(諸色)의 의미로 빛깔 있는 색을 뜻한다] 원령삼(圓領衫)이었던 것이다. 한편 관모는 군왕비의 것에 준하는 칠적관이었다.

대삼, 배자, 하피, 상아홀로 일습을 이루는 명부예복은 〈그림 1〉과 〈그림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은 원을 몰아내는데 기여한 명나라의 공신 기양왕 이문충의 첫 부인인 조국부인 필씨상으로 친왕비례에 따르는 관복을 착용한 모습으로 묘사되었다. 〈그림 2〉는 임희후 이방진부인 양씨상으로 공후백부인과 명부 1품의 예복제도에 해당하는 관복을 볼 수 있다.

『대명회전』에 규정된 대수삼은 키 160cm정도 되는 인물이 착용하기에 적합한 크기로서 강서성 남창에서 출토한 〈그림 3〉의 대수삼에 그 특징이 잘 드러난다. 묘주인 오씨는 우정왕(宇靖王)의 부인으로 우정왕은 명 태조의 16째 아들인 주권(朱權)의 손자, 주존(朱尊)이다. 이에 반하여 〈그림 1〉과 〈그림 2〉에 보이는 대삼은 『대명회전』에 규정된 대수삼과는 다른 특징을 보인다. 깃이나 여밈의 형태와 상관없이 소매가 넓은 명부예복을 대수삼이라고 하였기에 『대명회전』에는 명부예복의 형태적 통일을 위하여 대수삼을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의 왕비대삼은 명 황실에서 보내온 것이었으므로 『대명회전』의 규정을 따른 것 이었다고 할 수 있다. 『대명회전』에 규정된 〈그림 3〉과 같은 형태의 대수삼은 명이 망하고 조선에서 독자적으로 왕비관복을 만들 때 기준이 되었다.

### 3. 조선 후기의 적의 - 조선의 적의 제작기

#### 3.1 조선의 적의 제작 과정

명에서는 여성관복을 예복과 상복으로 구별하였으나 조선왕실에서는 그런 구분을 두지 않았다. 왕비 대례복은 적의, 법복, 명복(命服) 등으로 부르고 왕세자빈의 경우에는 명복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했다. 적의는 의복의 명칭 또는 대례복의 의미로 사용되었고, 법복은 영조 정순후가례(1759년)에 의대와 구별하여 처음으로 기록되었다. 왕과 왕세자의 법복에 면복과 원유관·강사포가 있으며 중궁전과 빈궁의 법복에는 적의가 있다. 의대는 법복을 제외한 모든 복식을 가리킨다. 명복은 각 계급에 따른 일정한 제복(制服)이라는 의미로서 지위와 사례에 맞는 왕실복식이라는 의미로 쓰였다.

명이 망한 후 조선에서는 자체적으로 적의를 만들어 착용하게 되었다. 1627년에 가례를 치룬 소현세자와 가례도감의궤에는 명의 제도를 기본으로 하여 조선의 적의를 만들어가는 상황이 잘 담겨있다. 가례를 위하여 준비한 소현세자빈의 복식 중에는 적의의 구성요소로 아청색 적의, 대홍색 겹대삼(祫大衫), 초록색 단삼(團衫), 대홍색 겹오(祫襍), 아청색 겹군(祫裙), 아청색 하피, 패옥, 적석, 말이 있다. 소현세자빈의 적의는 아청필단으로 만들고 관자(貫子)처럼 생긴 36편의 수(繡)를 붙이도록 하였고, 겹대삼은 대홍필단으로 준비하였다. 적의는 배자를 대신했던 것으로 파악되는데 <그림 4>에서 보듯이 대삼에는 아무런 문양이 없으나 사규오자, 즉 배자에는 권금적계문(圈金翟鷄文)을 수놓았기에 조선에서 36편 수원적을 배자에 붙였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수원적의 바탕감이 배자의 소재인 모단인 점으로 미루어 배자를 적의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크다. 즉 배자를 제일 위에 입고 그 아래에 대삼, 단삼, 오, 군의 순서로 입고, 배자 위에 하피를 드리웠던 것이다.

1638년 인조장열후[왕비] 가례에 마련한 적의에는 대홍색 대삼, 아청색 배자, 초록색 단삼(單衫), 대홍색 오(襍), 아청색 군(裙), 아청색 하피, 옥대, 수(綬), 패옥, 대대, 청옥규, 적석, 적말이 따른다. 이때는 적의가 없고 대홍색 대삼과 아청색 배자가 보인다. 왕비는 대홍색, 세자빈은 아청색으로 적의의 색을 구별하는 법도 때문인지 왕비의 적의를 마련할 때는 대홍색 대삼을 겉옷으로 삼고, 왕세자빈의 적의를 마련할 때는 아청색 배자가 빠지는 대신 아청색 적의를 마련하는 상황을 역대 가례도감의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는 『인조장열후 가례도감의궤』에 나타난 36편의 수원적 배치도로서 의복의 특징이 <그림 3>에 보이는 대수삼과 유사하다. 이것은 조선에서 만든 적의가 『대명회전』에 규정된 대수삼에 근거하고 있다는



<그림4> 『中東宮冠服』에 나타난 황태자비 관복 중 ①하피와 대삼 ②사규오자(배자), <그림5> 수원적 배치도, 『인조장열후 가례도감의궤』  
『中華歷代服飾藝術』

유추를 가능하게 한다.

1651년 현종명성후[세자빈] 가례에는 아청화문필단 적의, 대홍화문필단 별의(別衣), 대홍화문필단 內衣(내의)를 적의의 구성요소로 갖추었다. 역대 가례도감의궤의 적의 일습에 사소한 차이가 나타나다가 1749년(영조 25)에 편찬된 『국혼정례』와 1752년(영조 28)에 편찬된 『상방정례』에서 적의, 별의, 내의, 수, 폐슬, 대대, 하피, 상, 패옥, 규, 옥대, 말, 석을 갖추는 법복제도로 정리되었다.

영조대에 법복제도를 완성하는 기틀은 숙종대에 다져졌다. 『증보문헌비고』에 의하면 “숙종 13년에 오례의와 대명회전을 참고로 하여 진어할 관복을 개정하게 하였는데 그 대략은 다음과 같다. 적의는 오례의에 제도를 말하지 아니하였고 홍색바탕으로 한 것은 대명회전의 청색과 다른데 직문(織文)은 적(翟)이 아니고 봉(鳳)과 같으며 앞면에 여섯등, 뒷면에 아홉등인 것도 대명회전의 아홉등과 다르다. 관에 수식을 쓰지 않은 것은 대명회전의 구휘(九翫), 사봉(四鳳), 구적(九翟)등의 관과 다르며 적의관(翟衣冠)은 오례의에 기록된 바가 없으니 마땅히 회전집례에 따라 개정한 것이나 명나라 제도를 눈으로 보지 못하였고 중국조정의 비단의 빛깔과 품질과 척도가 우리나라와 아주 다르므로 다만 글과 그림에 의거하여 고쳐야하니 그릇됨을 면치 못할까 두렵다. 대대가 가장 예제에 어긋나는 것 외에는 가볍게 의논하기가 어렵다.” 이것은 조선의 적의제도가 명나라의 예제를 참고하였으나 그대로 실행되지 않은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이전부터 내려오던 적의를 여러모로 검토하여 숙종대에 적의가 대삼제에 근거한 것임을 확인했다. 『국조속오례의보』에 따르면 왕비 법복에는 수 51편을 붙인다. 왕비법복에 붙이는 수 36편이 51편으로 변화하는 시기는 숙종대로 숙종 인현후 가례에서 확인된다. 또한 남자의 전삼후사(前三後四) 상(裳)의 개념을 도입하여 전행웃치마를 마련한 시기도 숙종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영조대에 『국혼정례』와 『상방정례』를 통하여 적의 제도를 완성했으며 대한제국 이전까지 그대로 유지되었다. 영조대부터 대례에 착용하는 적의를 법복이라고 했다.

### 3.2 적의의 착용례 - 법복용 적의와 상복용 적의

적의라는 동일한 명칭을 갖고 있지만 적의에는 대비 · 중궁 · 빈궁이 진연이나 존숭에 착용하는 적의와 중궁이나 빈궁이 가례 등 대례에 착용하는 적의가 있다. 후자를 법복이라고도 한다. 명나라에서 여성의 관복을 상복과 예복으로 구분했듯이 조선에서도 상복으로서의 적의와 법복으로서의 적의를 구별했던 것이다. 왕의 법복은 면복과 강사포이므로 법복으로서 적의를 착용하는 사례는 왕이 법복을 착용하는 사례에 준한다고 볼 수 있다.

상복용 적의와 법복용 적의는 갖추는 부속품과 문양으로 구별하였다. 상세한 규정은 영조대에 편찬한 『상방정례』, 『국혼정례』, 『국조속오례의보』에 나타나있다. 왕비 법복에는 오조원룡보, 세자빈 법복에는 사조원룡보를 달며, 상복용 적의에는 왕비, 세자빈, 대비 모두 봉황보를 단다. 왕비법복에 따르는 전행웃치마의 스란단은 용문이고, 세자빈 용은 봉문이다. 상복용 적의에 따르는 전행웃치마의 스란단은 보의 문양으로 미루어 볼 때 봉스란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세자빈의 상복용 적의에는 전행웃치마가 아닌 겹군을 갖추었다. 왕세자빈의 법복에 전행웃치마를 갖추게 된 것은 『상방정례』에서 확인할 수 있고 그 이전

까지는 겹군을 갖추었다. 상복용 적의에는 대진주 6개를 장식한 석을 갖추지만 법복용 석에서는 진주를 제거하며, 법복용 적의에는 옥대, 패옥, 규를 갖추지만 상복용 적의에는 갖추지 않았다. 적의의 용례에 따른 차이를 <표 1>로 정리하였다.

### 3.3 착용자의 신분에 따르는 적의의 특징

적의는 착용자의 신분에 따라서 색을 달리하였다. 대비는 자적색, 왕비는 대홍색, 세자빈은 아청색이다. 대비의 적의를 자색으로 정한 것은 효종 2년으로 왕대비의 적의 색상을 논의하다가 대비의 평상복에 의하여 자색(紫色)으로 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에서 벗어나는 사례가 혜경궁 홍씨의 적의이다. 정조가 왕위에 오른 후 어머니 혜경궁을 위하여 잔치를 마련하면서 혜경궁이 입을 적의에 대해서 논의한 바 있다. 이 상황은 정조실록 2년 (1778 무술) 4월 26일(을묘)

	법복 (가례 · 책례)	예복 (진연 · 존승)
적의(翟衣)	대홍향직(大紅鄉職) 35자 안 대홍향직 5자 5치	대홍향직(大紅鄉職) 35자 안 대홍향직 5자 5치
폐슬(蔽膝)	대홍향직 1자 6치	대홍광적(大紅廣的) 1자 6치
하피(霞峴)	모단(冒綬) 6자	모단(冒綬) 7자 5치
상(裳)	 [전행웃치마] 남향직(藍鄉職) 34자 직금용(織金龍) 스란	 [전행웃치마] 남향직(藍鄉職) 33자 5치 봉(鳳)스란 (추정)
수원적(繡圓翟)	 대홍광적 5자 5치 수원적 51	 대홍광적 2자 5치 수원적 51
흉배(胸背)	 오조원룡보(五爪圓龍補) 4개(좌우어깨, 흉, 배)	 대홍 봉(鳳) 흉배 4개(좌우어깨, 흉, 배)
말(襪)	대홍광적 3자 5치 안 남라(藍羅) 4자	대홍광적 1자 1치 안 대홍주(大紅袖) 2자 2치
석(舄)	적석(赤舄) 진주 없음	적석(赤舄) 대진주 6개
패옥(佩玉) 규(圭) 대(帶)		없음

<표 1>『상방정례』와『국조속오례의보』에 나타난 왕비 적의의 용례에 따른 차이

기사에 상세하게 나타나 있다. “혜경궁께서 입으실 적의(翟衣)의 복색(服色)은 전례가 없는 것이다. 다만 마땅히 옛 것을 인용하고 지금의 것을 참조하여 의의에 맞게 정해야 하겠는데, 자색(紫色)은 최고 어른이 두 분이라는 혐의가 있고 세자빈을 상징하는 흑색(黑色)은 혜경궁을 어른으로 모신다는 뜻이 없게 되며, 홍색(紅色)과 남색(藍色)에 있어서는 각각 쓰고 있는 테가 있어 본시 인용할 만한 사례가 없는 것이다. 오



〈그림6〉 원쪽부터 대비의 자적색적의, 王비의 대홍색적의, 세자빈의 아청색적의, 혜경궁의 천청색적의

직 천청색(天青色) 한 가지가 가장 타당한데, 대개 청색(青色)은 본시 동조(東朝)[대비]의 복색(服色)이었으나 자색(紫色)으로 제도를 정하게 된 뒤부터는 치워두고 쓰지 않게 되었다. 지금 천청색을 생각하는 것은 곧 청흑(青黑)의 의의를 취한 것인데, 동조의 적의(翟衣)를 자색으로 하여 홍흑(紅黑)의 의의를 취한 것과 오묘하게 서로 맞게 되고 또한 차등도 있게 된다. 이미 대신에게 물어보매 대신의 뜻도 또한 그러했으니, 혜경궁의 복색을 천청색(天青色)으로 정하라” 하였다. 혜경궁이 혈육으로는 대비에 해당하지만 엄연한 대비 정순왕후가 존재했으므로 혜경궁은 애매한 공적 지위를 갖고 있었다. 자색을 사용하면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으므로 혜경궁 적의에는 천청색을 썼다. 〈그림 6〉은 고증을 통하여 재현한 적의로서 원쪽부터 대비의 자적색적의, 王비의 대홍색적의, 세자빈의 아청색적의, 혜경궁의 천청색적의이다.

#### 4. 대한제국의 적의

1897년,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 위에 오르면서 연호를 광무로 정하고 모든 의례의 틀을 새로 정했다. 그에 따라 『대명회전』, 『국조오례의』, 『국조속오례의보』 등을 참고하여 복식제도를 새로 마련하고 『대한예전』과 『예복』에 그 내용을 담았다. 『대한예전』은 1897년에 편찬했고, 『예복』은 1898년 편찬한 책으로 앞서 편찬한 『대한예전(大韓禮典)』에서 언급하지 않은 부분을 『예복』에서 보충했다. 대한제국 이전의 조선에는 황후가 없었기 때문에 『대명회전』에 근거하여 적의제도를 새로 마련했다. 명나라의 적의제도는 주대(周代)에 기틀이 마련되어 역대 중국 왕조를 통하여 전해진 것으로 가깝게는 송의 제도를 이어받아 〈그림 7〉의 신종황후상과 인종황후상에서 보는 바와 같은 적의 제도를 운영하였다. 대한제국에서는 황후 관복을 구룡사봉관(九龍四鳳冠)과 12등 적문의 심청색 적의로 정하고, 황태자비 관복은 구휘사봉관(九翟四鳳冠)과 9등 적문의 심청색 적의로 정했으며, 황비관복은 구적관(九翟冠)과 청색 국의(鞠衣)로 정하여 왕실의 적통을 잇는 여인만이 적의를 입는다는 조선왕실의 원칙을 대한제국에서도 고수했다.

『예복』에 의하면 황후 관복은 적문(翟文)과 소륜화(小輪花)를 12등으로 짜 넣은 심청색 적의, 옥색 중단, 심청색 폐슬, 옥혁대, 대대, 수(綬), 옥패, 청말(靑襪), 청석으로 구성했으며 황태자비 적의는 황후적의에 준하나 12등이 아니라 9등의 적문(翟文)과 소륜화(小輪花)를 넣도록 했다. 이러한 규정에 의거하여



〈그림7〉 좌측부터 12등 적의를 입은 송대 신종황후상, 12등 적의를 입은 송대 인종황후상,  
「中華五千年文物集刊 - 服飾篇 下」

마련된 12등 황후 적의는 현재 세종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고, 9등 왕비 적의는 고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어서 대한제국의 황실여인의 관복 제도가 어떻게 실행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세종대학교에 소장된 황후 적의는 윤황후가 후학을 위하여 세종대학교 설립자에게 하사한 유물 가운데 포함되어 있으며 적의, 중단, 하피, 폐슬이 국가지정문화재인 중요민속자

료 제54호, 청석은 55호로 지정되었다. 영친왕비 적의는 영친왕비가 일본에서 거주하던 당시 관리의 어려움으로 1957년부터 동경국립박물관에 보관시키다가 1991년 한·일정상회담 합의로 환수되어 궁중유물전시관(현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관리하던 중 2009년에 영친왕비 적의와 부속제구를 포함한 일괄 유물 333점이 국가지정문화재인 중요민속자료 제265호로 지정되었다. 영친왕비 적의는 모든 부속제구를 갖추고 있으므로 대한제국 적의의 전모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황후 적의와 왕비적의를 『대한예전』과 『예복』에 기록된 규정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 4.1 수식(首飾)(대수(大首))

적의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규정과 크게 달랐던 점은 관모이다. 규정에는 황후 관모로 〈그림 7〉에서 보는 바와 같은 구룡사봉관, 황태자비 관모는 구휘사봉관으로 정했지만 실제로는 조선왕실에서 적관 대신 관모의 용도로 갖추던 수식을 대한제국의 심청색 적의에도 계속 썼다. 수식은 명복을 입을 때 갖추는 최고의 예장이며 비?빈의 신분을 드러내는 머리모양이다. 18세기 중엽 이전에는 수식이 대수와 거두미를 칭하는 이중적 의미로 쓰였으나 그 이후로 대수를 가리키는 것으로 한정되었고, 1922년에 사용된 영왕비의 유물에는 대수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대수에 소요되는 수식 칠보는 기본비녀와 다양한 장식비녀, 진주동곳, 자적금마리사기 · 자적금뒤당기 등의 맹기류, 마리삭금당기를 장식하는 대요반자 등 최고의 머리 장식에 걸맞는 물목으로 이루어졌다.

#### 4.2 적의

『대한예전』에 황후 적의는 심청색 바탕에 12등으로 적문(翟文)을 넣고 사이사이에는 소륜화를 넣어 제직하며, 깃, 도련, 수구는 홍색으로 하고 운룡문을 직금한다고 하였다. 황태자비 적의는 심청색에 9등으

로 138쌍의 적문(翟文)과 소륜화를 넣어 제작하고 깃, 도련, 수구는 홍색으로 하며 운봉문을 직금한다고 하였다.『대한예전』을 편찬할 당시에는 황후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인지 황후복식에 대해서는 아주 소략하게 다루고 있다.『대한예전』에 명기되지 않은 황후적의에 들어가는 적문의 수를『대명회전』에는 148쌍으로 기록하고 있다. 대한제국에서는 적의를 제작하면서 소륜화를 이화문으로 대치하여 윤황후 적의에는 148쌍의 꿩과 이화문을 12등으로 제작하고, 영친왕비 적의에는 138쌍의 꿩과 이화문을 9등으로 짰다. 적의의 깃, 도련, 수구에는 홍색 바탕에 연금사(撚金絲)로 직금하여 선을 댔는데 황후는 운룡문, 왕비는 운봉문으로 구별했다. 고름의 색상은 홍색으로 했으며 우임으로 여미게 달았다. 가슴과 등, 양어깨에는 황후와 왕비 모두 오조룡(五爪龍) 보(補)를 달았는데 황후의 보는 지름 18c, 왕비의 보는 지름 17.5c이다. 황후 적의는 길이 151.5c, 화장 101c, 진동 23c, 뒤품 53c, 고대 17c, 소매너비 72c, 선너비 9.5c이며, 영친왕비 적의는 길이 143.8c, 화장 104.6c, 진동 24.2c, 뒤품 53c, 고대 17c, 소매너비 70c, 선너비 9c이다.

#### 4.3 중단

중단은 곁옷 아래에 빙쳐 입는 받침옷이다. 윤황후의 중단은 적의보다 살짝 작게 만들어 적의 안에 끼워 넣고 배래와 겨드랑이 아래 옆선을 큼직하게 띠서 고정시킴으로써 한 번에 입을 수 있도록 배려했고 영친 왕비 중단은 적의와 분리되어 있다. 규정에는 옥색이지만 윤황후와 영친왕비 중단은 청회색을 띠며, 깃, 도련, 수구에 홍색으로 선을 대고, 홍색 고름을 달았다. 황후 중단의 깃 부분에는 불문(黻文) 11개를 부금하고, 왕비 중단에도 같은 위치에 불문 11개를 부금했다. 규정에는 황후적의에 불문 13개, 왕비적의에 불문 11개를 직금한다고 하였으나 신분의 구별없이 모두 11개의 불문을 부금했다. 영친왕비 중단은 길이 143.5c, 화장 105c, 진동 24.5c, 뒤품 53c, 고대 18c, 소매너비 70.7c, 선너비 9.3c이다. 직접 실측한 것 이 아니어서 단언할 수 없으나 미세한 오차가 있는 듯하다.

#### 4.4 폐슬

폐슬은 허리 아래로 천을 드리워 하체를 가리고 공경을 다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적의와 동일한 심청 색이며 가장자리 사면에 홍색으로 선을 댔다. 황후 폐슬은 3줄의 적문 사이사이에 이화문을 짜 넣고, 운룡 문을 직금한 홍색 선을 댔으며 왕비 폐슬은 2줄의 적문 사이에 이화문을 배치하고 운봉문을 직금한 홍색 선을 댔다. 황후폐슬은 상단너비 27c, 하단너비 32.5c, 길이 53.5c, 선너비 6.4c이다. 왕비폐슬은 상단너비 29.5c, 하단너비 34.5c, 길이 53.5c이며, 5.5c 너비의 홍색 직금단을 폐슬의 완성선 안쪽으로 들여와 덧매주었다 폐슬의 상단 좌우에는 혁대에 폐슬을 걸 수 있도록 쇠고리[구자(鉤子)]를 달았다.

#### 4.5 옥혁대

옥혁대는 청색비단으로 싸고, 옥판과 금판으로 대 위를 장식했다. 황후용 옥에는 금으로 운룡문을 새기고, 황태자비용에는 운봉문을 새기도록 규정했으나 영친왕비 유물은 아무런 문양을 새기지 않은 민옥

으로 장식했으며 금판은 꽃잎모양으로 만들었다. 영친왕비 옥혁대의 크기는 길이 117.5c, 너비 3c, 높이 2.9c이다.

#### 4.6 대대와 수

황후 대대의 경우, 겉은 청색, 안은 홍색으로 하고, 상단에는 붉은색 연, 하단에는 녹색 연을 대는데 신(紳-드리우는 자락)은 운룡문을 직금한 홍색으로 하며 청색비단으로 부대(副帶)를 댄다고 규정하였다. 왕비 대대도 이와 동일하나 운룡문 대신 운봉문을 직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영친왕비 대대는 겉이 흰색, 안은 홍색이며 식서로 재단한 연한 녹색 공단으로 연을 댔다. 신은 직금하지 않았으며 대대처럼 겉을 흰색, 안을 홍색으로 하고 연한 녹색으로 연을 댔다. 이것은 황태자비의 대대 규정이 아닌 황태자의 대대 규정에 충실한 구성이다. 규정에 의하면 황태자 대대는 겉을 흰색[소(素)], 안을 붉은 색[주(朱)]으로 하고 상단에는 붉은 색 연, 하단에는 녹색 연을 댄다고 했다. 왕의 법복과 왕비의 법복에 따르는 부속제구가 비슷하므로 분류하여 보관하는 과정에서 영친왕 면복의 대대와 바뀌었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한편, 제도와 실행상의 차이가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미루어 규정은 차별화시켰지만 제작과정에서 왕의 것과 동일하게 제작했을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 영친왕비 후수 뒷면에 ‘적의패옥대’라는 명문이 적힌 한지가 실로 고정되어있기는 하지만 왕실에 보관되던 것이 아니고 일본에서 보관하던 것이며 다른 부속제구에 일본어 명문이 나오는 상황으로 볼 때 왕의 것과 바뀌었을 가능성 이 아주 없지는 않다.

윤황후의 대대가 소실된 상황에서 황후 대대의 특징을 유추해 본다면 황제의 대대와 동일하게 제작했을 가능성과 황후 대대의 규정대로 제작했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황제의 대대는 겉을 흰색, 안을 붉은 색으로 하고 상단에는 붉은 색 연, 하단에는 녹색 연을 대며, 금(錦)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영친왕비 대대와 같은 형태를 취한다. 다만 영친왕비 대대는 상연과 하연의 색을 구별하지 않았기에 규정에 맞춘다면 상단은 붉은색 연, 하단은 녹색 연을 대는 것이다. 영친왕비 대대의 길이는 75c, 너비 10c이며, 신의 길이는 66.5c, 너비 11c이며, 광다회의 길이는 100c, 너비 6.5c이다.

수(綬)는 도장이나 옥 등 물건을 몸에 지닐 때 엮어주는 역할을 하던 것이 장식화되면서 예복의 구성요소로 남은 것이다. 뒤에 찬다는 것을 강조하여 후수라고도 부른다. 황후의 수는 훈색(纁色) 바탕에 황(黃) 적(赤) 백(白) 표(縹) 록(錄)의 오채(五彩)로 직성하고 옥환 2개를 달며, 왕비용은 황색이 빠진 적(赤) 백(白) 표(縹) 록(錄)의 사채(四彩)로 구성하며 옥환 2개를 달도록 되어있다. 대대에 달려있는 영친왕비 후수는 문헌과 동일한 사채이지만 옥환이 아닌 도금환이 달려있으며 술을 포함하여 길이 83c, 너비 23.2c이다.

#### 4.7 옥패와 소수

옥패란 옥의 아름다움을 몸에 지니고자 하는 옥망과 옥이 복을 부른다는 주술성이 더해져 차고 다니던 풍습이 예복의 구성요소로 남은 것이다. 옥패는 패옥이라고도 하며 후수와 동일하게 제작된 소수를 패옥에 받쳐서 짹을 이루었다.

옥패는 형(珩) 1, 우(瑀) 1, 거(琚) 1, 충아(衝牙) 1와 황(煌) 2이 있으며 형 아래에 두개의 옥판을 연결했다. 옥판의 모양은 옥화이며, 옥화 아래에는 옥적을 단다. 황후용은 금으로 운룡문을 새기고 황태자비용은 금으로 운봉문을 새긴다고 규정했으나 왕비유물은 무늬가 없는 민옥으로 되어있다. 패옥을 받치는 황후의 소수(小綬)는 오채로 직성하고 황태자비 소수는 사채로 직성하도록 하였다. 영친왕비의 소수는 백(白) 흑(黑) 표(縹) 록(錄) 적(赤)의 오채로 되어있는데 옥패와 소수가 “면복패옥”이라고 쓰인 상자 안에 들어있던 것으로 미루어 적의에 따르는 부속품이 아니라 영친왕의 면복에 따르는 패옥과 소수로 판단된다. 소수의 전체길이는 77c이고, 너비는 9c이다.

#### 4.8 말과 석

말(襪)과 석(舄)은 적의의 색과 동일한 청색이다. 견으로 제작된 영친왕비 청말(青襪)이 2켤레 남아있는데 한 켤레는 길이 33.5c, 목 18c, 회목 15.2c, 바닥길이 26.2c이며, 또 한 켤레는 길이 38c, 목 20c, 회목 16.5c, 바닥길이 26c이다.

황후와 황태자비의 석에는 각각 금운룡문과 금운봉문으로 장식하고 검은 선을 두르며, 황후의 신코에는 구슬 5개를 장식하고 황태자비의 신코에는 구슬 3개를 장식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황후와 황태자비의 석에는 모두 문양장식이 없고 신코에는 망술을 달아 장식했다. 황후의 석은 청색, 왕비의 석은 심청색으로 색상에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황후 청석은 길이 24c, 높이 3.5c이며, 왕비 청석은 길이 25c, 뒤크치 높이 5.9c이다. 말과 석의 색은 적의의 색과 동일하게 만들기 때문에 세종대학교에 소장된 황후의 석이 12등 적의와 일습을 이루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차후 면밀한 검토를 요한다.

#### 4.9 옥곡규

옥곡규는 표면에 곡식의 무늬를 새겼고 윗부분은 세 개의 산등성이 모양으로 만들었다. 영친왕비의 옥규는 길이 14.4c, 너비 6c이다. 규를 싸는 황후용 옥규 주머니는 황금(黃錦), 황태자비용은 금(錦)으로 만들도록 규정했으나 영친왕비 옥규주머니는 홍색공단으로 제작되었으며 주머니 길이 16.5c, 너비 6.9c이다.

#### 4.10 하피

명나라 제도에는 하피가 적의의 부속품이 아니지만 조선에서는 하피를 적의의 부속제구로 마련하였다. 명에서는 여성관복을 예복(禮服)과 상복(常服)으로 구분하고 그에 따라 관식과 의복을 구별하였는데 명에서 조선에 보내온 왕비관복은 예복이 아닌 상복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그 옷을 대례복인 적의로 인식했고 모든 물품을 적의 일습으로 이해했다. 대한제국에서 명의 제도를 바탕으로 적의를 새로 제정할 때 규정에는 넣지 않았지만 하피를 적의의 부속제구로 마련했다.

겉은 검은색 공단, 안은 훈색으로 하고 겉면에 금박으로 봉문과 운문 각 26개를 번갈아 배치하였다. 윤황후 하피는 길이 497.6c, 너비 11.2c이며 적의에 고정시키기 위한 단추 2개를 끝단으로부터 103c인 곳

에 각각 달고, 길이의 중심이 되는 248.8cm되는 곳에 단추 1개를 달아서 하피가 적의에서 훌러내리지 않도록 했다. 단추를 경계선으로 봉문의 방향이 바뀌는데 이것은 착용했을 때의 모양을 고려한 것이다. 영친왕비 하피는 길이 492cm, 너비 11.6cm이며 단추가 달리지 않았다.

#### 4.11 전행옷치마

전행옷치마는 명나라 제도에는 없는 것이지만 조선에서는 남자의 중단 위에 전삼폭(前三幅), 후사폭(後四幅)의 상(裳)을 갖추듯이 적의나 원삼 등 대례복을 입을 때 전삼폭, 후사폭의 전행옷치마를 갖추었다. 이러한 구성은 대한제국에도 이어졌다.

### 5. 적의를 제작하는 방식과 착용법

#### 5.1. 적의를 제작하는 방식

국립중앙박물관에는 중요민속자료 제67호 적의본과 폐슬본이 소장되어 있다. 12등 적의본은 적의를 만들기 위하여

십청색과 홍색의 한지를 붙여서 실물크기로 만들고 문양을 그려 넣은 것이다. 12등 적의용 폐슬본은 소색의 한지를 폐슬크기로 재단하고 문양을 그려 넣었다. 적문과 이화문, 그리고 홍색 선에 들어가는 용문을 그려서 옷감을 짜기 위한 밑그림으로 사용하는 동시에 의복을 제작하기 위한 본으로 활용한 것으로 이해된다. 적의본이 아니어도 저고리본이나 홍장삼본, 면사본 등이 남아있는 상황을 볼 때 의복을 제작하기에

구성요소	세종대소장 황후적의	고궁박물관소장 왕비적의
적의		
중단		
폐슬		
옥혁대		
대대 수(綏) 옥파		
청말		
청석		
규		
하피		

〈표2〉 12등 황후 적의와 9등 왕비 적의 비교

앞서서 종이로 실물크기의 본을 만들고 그것을 바탕으로 수를 놓는다든지 제작하는 방식으로 옷감을 마련하고, 재단하며, 바느질의 과정을 밟았던 것을 알 수 있다. 12등 적의본을 살펴보면 윤황후 적의에 보이는 적문의 수와 차이가 있고 홍색 선단에 직금하는 운룡문의 모양에도 차이가 있으며 크기에도 오차가 있어서 기미년에 만든 윤황후의 적의본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크다. 윤황후의 12등 적의를 처음 만든 것은 1907년으로 추정된다. 순종이 황제 위에 오르면서 윤비도 황후 위에 올랐기에 신분에 맞는 적의를 필요로 했겠지만 그 전까지는 황후가 없어서 황후용 적의가 없었던 것이다. 12등 적의를 처음 만든 것은 1897년 11월 20일 명성황후의 장례를 위해서였을 가능성이 있다. 적의를 만들 때는 손바느질과 더불어 재봉틀도 사용했다. 윤황후와 영친왕비 적의는 모두 손바느질과 재봉틀 바느질이 사용되었다. 재봉틀 사용은 1882년, 순종과 순명효황후 민씨와의 혼인예식인 임오가례를 준비할 때로 확인된다. 『임오가례용물품발기』에는 방적기계 9건, 제사기계 6건, 탄면기 2좌, 재봉기 1좌가 포함되어 있다.

12등 적의본은 총길이 152cm, 뒤품 48cm, 선단너비 9.5cm이며, 폐슬본은 길이 57cm, 상단너비 29cm, 하단너비 34cm의 크기이다. 이에 비하여 기미년에 만든 황후 적의는 총길이 151.5c, 뒤품 53c, 선단너비 9.5c이며, 황후폐슬은 길이 53.5cm, 상단너비 27cm, 하단너비 32.5cm이다. 소매를 제외하고 시문된 적문의 수는 적의본에 100개, 황후 적의에 88개다.

적의는 훌옷이므로 어깨와 겨드랑이에 바대를 대주었는데, 황후적의에는 고대를 중심으로 길이 54c, 너비 10c의 어깨바대를 댔고, 겨드랑이에는 길이 22c, 너비 16c의 바대를 댔다. 여밈을 위하여 길이 88c, 너비 8.2c 크기의 홍색고름을 오른 쪽 길과 왼쪽 선단에 각각 달았으며, 겨드랑이에는 길이 84c, 너비 1.5c의 끈을 지름 9c의 고리로 만들어 달아서 대(帶)를 고정시킬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늘어뜨려 놓았다. 수구에는 골선에서 20c 내려온 위치에 홍색 박쥐매듭을 달았다.

황후 적의의 뒷길에는 쌍밀이 고리가 6개 달려있다. 고대점 좌우에 하나씩, 고대 중심에서 18c 내려온 곳에 하나, 그곳에서 수평으로 좌우 18c 나간 곳에 하나씩, 뒷길의 등솔 끝, 도련 중심에 하나, 도합 6개의 쌍밀이 고리가 달려있다. 고대에서 18c 내려온 곳에 횡으로 달려있는 3개의 고리는 대대를 고정시키기 위한 단추 고리로 이해된다. 단추 고리가 진동보다 올라간 위치에 달려있으나 적의를 착용하면 진동이 곡선화되어 직선거리는 짧아진다. 또한 대대에 달린 부대의 너비는 대대보다 작기 때문에 진동보다 위에 달린 단추 고리에 대대를 걸고 겨드랑이 아래로 부대를 묶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한편 하피 단추와 단추고리와의 관계다.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고대 좌우의 고리 2개와 고대 중심에서 내려온 위치에 달린 고리 하나가 하피에 달린 3개의 단추와 짹을 이루는 것으로 추정해왔다. 따라서 하피가 뒷길에 놓이는 모양은 W와 같은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뒷길의 도련 중심에 달려있는 고리와 연관지어보면 V자로 도련까지 떨어지는 모양을 이룬다. 실제로 하피에 달려있는 단추를 고대와 도련에 달려 있는 단추 고리에 끼우면 자연스럽게 V자를 이루며 날아오르는 봉문의 방향도 일관성을 갖는다. 지금까지 뒷길 도련중심에 달린 단추고리를 간과함으로써 하피를 드리운 모습을 W로 추정했던 것이라고 본다.

영친왕비 적의는 길이 143.8c, 화장 104.6c, 진동 24.2c, 뒤품 53c, 고대 17c, 소매너비 70c, 선너비 9c이다. 영친왕비 적의에는 고대를 중심으로 길이 77c, 너비 11c의 등바대를 공그르기하고, 겨드랑이에는

남색 오호로단(五葫蘆緞)으로 만든 길이 20c, 너비 20c의 결바대를 공그르기로 달았다. 소매통이 넓어서 수구에는 골선으로부터 19.5c 내려온 위치에 홍색 박쥐매듭을 달았다. 결고름용 긴고름은 길이 93c, 너비 8.3c이며 짧은 고름은 길이 83c, 너비 8.3c이다. 안고름은 너비 8.3c, 길이 각 93c, 86c이다. 겨드랑이 부분에는 너비 2c, 총길이 81c의 대(帶) 고리를 달았다. 37c되는 지점에서 반으로 접고 거기에서 8.5c되는 곳을 고리로 만든 후 겨드랑이 밑에 두고 박음질로 고정시켰다. 뒷길에는 쌍밀이기법으로 만든 2c 길이의 고리가 6개 달려 있다. 고대 좌우에 1개씩, 고대 중심에서 18.5cm 내려온 보 위에 1개, 이 고리를 중심으로 좌·우 18c 나간 곳에 1개씩, 그리고 등솔선 끝 도련의 중심에 1개 있다. 윤황후 적의와 마찬가지로 3개는 하피를 걸기 위한 것이고 나머지는 대대를 걸기 위한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영친왕비 대대와 하피에 단추가 없는데 이는 제작과정에서 생략한 것으로 이해된다. 등솔은 재봉틀로 박아 시접을 오른쪽으로 향하게 처리하였고 옆선 또한 재봉틀을 사용하여 통솔로 마무리했다.

적의의 앞, 뒤, 그리고 어깨에는 색사와 금사로 수놓은 오조룡보가 달려있는데, 황후의 보는 지름 18c, 왕비의 보는 지름 17.5c이다. 고대 바로 옆 좌우에 1개씩, 가슴과 등에 각각 1개씩, 모두 4개의 용보를 달았다. 등에 달린 윤황후의 보는 뒷고대 중심에서 18c 내려온 위치에 달렸고 영친왕비 보는 뒷고대 중심에서 6.5c 내려온 위치에 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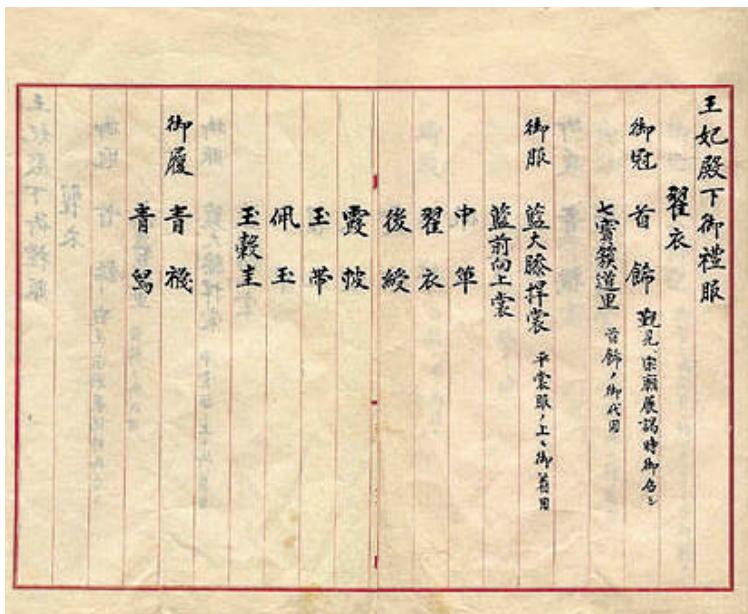
## 5.2. 적의 착용법

〈그림 8〉은 일본에서 혼인예식을 치른 영친왕이 1922년 4월 왕비와 진왕자와 함께 귀국하여 조현례를 올린 후에 촬영한 사진으로 황후와 황태자비가 적의를 착용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적의 착용방식은 낙선재 소장문서인 「왕·왕비예복 착장순서」에 나와 있다. 「왕·왕비예복 착장순서」는 일제강점기에 쓰여진 문서라 원형에서 다소 벗어나거나 변형되었을 가능성이 적지 않으나 참고자료로서의 가치는 충분하다.

적의를 입기에 앞서 먼저 평상복을 입는다. 분홍 또는 보라 속저고리 위에 노랑저고리를 입고 흥치마 또는 남치마를 입는다. 치마 속에는 속속곳, 바지, 단속곳, 너른바지를 입고, 예복을 입을 때는 무지기, 대습치마를 갖춘다. 평상복 위에 남색 대란치마를 입고, 남색 전행웃치마를 덧입으며, 중단, 적의의 순으로 입는다. 상(裳)의 개념을 갖는 전행웃치마는 본래 중단을 입고 그 위에 갖추는 것이지만 여자의복의 경우에는 국말이 되면 받침웃과 겉웃을 고



〈그림8〉 영친왕 가례 때 조현례 직후(왼쪽으로부터 덕혜옹주, 영친왕비, 윤황후, 순종황제, 영친왕, 진왕자, 고찬시)



〈그림9〉 낙선재 소장문서(1938년) 「왕·왕비예복 착장순서」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유물

므로 뒷길에서 볼 때 V자를 이룬다.

옥대는 전동 밑에 달려있는 고리에 걸어서 대구가 정면에 오도록 맷는다. 폐슬이 정면에 놓이도록 좌우 쇠고리를 옥대에 걸고, 패옥은 양옆에 놓이도록 옥대에 건다. 발에는 청말과 청석을 신으며, 머리에는 수식을 갖추었다. 손에 옥곡규를 들어서 매무새를 완성했다.

## 6. 맷음말

이번 전시를 위하여 윤황후의 12등 적의를 재현하면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자 적의의 변화과정과 제도와 실행 사이의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12등 심청색 적의는 조선왕실의 유일한 황후, 순명효황후 윤씨의 대례복으로 대한제국에서는 명제를 참고하여 황후적의의 규정을 마련하고 의복을 제작했다.

윤황후의 12등 적의는 부속제구의 부분적인 소실로 완벽한 일습을 갖추지 못했다. 다행히 영친왕비의 9등 적의가 일습을 갖추고 있어서 이를 참고로 12등 적의의 원형을 예측하고 착용법을 제시할 수 있었다. 윤황후와 영친왕비의 적의는 광무원년에 시행된『대한예전』, 『예복』에 보이는 규정을 따르되 조선후기 적의제도의 흔적도 남기고 있다.

적의의 형태는 조선시대와 완전히 달라졌으며 그에 따라 중단의 형태, 폐슬의 문양과 색 등이 바뀌었다. 관모는 황후 구룡사봉관, 황태자비 구희사봉관의 규정을 대신하여 조선시대의 대수를 썼다. 또한 적의의 부속제구가 아닌 하피와 전행웃치마를 적의의 일습으로 마련하였다. 대대는 규정과 실제 사이에 큰 차이가 있었다. 영친왕비 대대가 황태자 대대의 규정에 따라 제작된 것이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짐쳐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윤황후 대대는 영친왕비 대대처럼 황제의 규정에 따라 제작되었을 가능성과 황후대대의

정시켜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중단을 입기 전에 착용하게 되었다. 윤황후의 적의 속에 중단이 붙어있는 것이 한 사례이다.

후수는 대대에 달려있으므로 적의 뒷길에 있는 단추고리에 대대를 걸어서 고정시키고 부대를 가슴 위에서 묶어준다.

하피를 드리울 때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대와 뒷도련의 고리에 하피 단추를 걸어서 고정시킨다. 하피는 앞도련에서 48c정도 올라간 무릎 정도에 놓이고 고대를 지나 뒷도련 고리에 걸렸다가 다시 고대를 지나 앞길로 내려오

규정에 따라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새로운 유물의 발굴로 여러 가지 가능성이 구체화되기를 기대한다.

이번 연구를 통하여 새롭게 찾아낸 것은 적의 뒷길에 달린 고리 6개의 용도이다. 뒷길 위쪽에 횡으로 나란히 놓여있는 3개의 고리는 대대를 고정하기 위한 것임을 밝혔다. 또한 하피를 고정하기 위한 고리의 위치를 추정했다. 이전까지는 하피를 드리울 때 고대 좌우의 고리 2개와 고대 중심에서 내려온 고리 하나에 하피 단추를 고정시키는 것으로 추정했다. 따라서 하피가 뒷길에 놓이는 모양이 W와 같은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하피를 고정시키는 단추는 고대 좌우의 고리 2개와 등솔 끝 도련의 중심에 달린 고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피에 달려있는 단추를 고대와 도련에 달려있는 단추 고리에 끼우면 자연스럽게 V자를 이루고 하피의 봉문도 올바른 방향성을 갖게 된다. 이러한 추론은 적의를 재현했기에 가능했다. 눈으로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착용을 통해서 다양한 가능성을 실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복식은 입었을 때 가장 완벽한 형태가 연출되고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다. 경운박물관의 유물재현작업을 앞으로도 계속하여 복식사의 발전에 큰 힘이 되기를 희망한다.



〈그림10〉 하피 착장 뒷모습 (V형)

#### 참고문헌

- 『大明會典』(1576) 卷 61 禮部 19  
『大韓禮典』(1897) 卷 4 祭服圖說  
『禮服』(1898) 皇后冠服 衣制 皇太子妃冠服 衣制  
『增補文獻備考』(1908) 卷 79 禮考 26 章服 1  
『古文書集成』十二, 十三,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김소현, 안인실, 장정윤(2007), “조선시대 적의의 용례와 제작에 대한 고찰”, 『복식』Vol.57 No.6, 한국복식학회  
김지연 (2008), “조선시대 여성 예관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문화재대관 중요민속자료② - 복식 · 자수편』, 문화재청, 2006  
『영친왕일가복식』, 고궁박물관, 2010  
趙豐(2002), 『紺織品考古新發現』, 藝紗堂/服飾出版  
『中華五千年文物集刊 - 服飾篇 下』, 中華五千年文物集刊編輯委員會, 1986  
黃能馥 · 陳娟娟(1999), 『中華歷代服飾藝術』, 中國旅遊出版社



# 유 물 목 록

- 1 순종 어필 純宗 御筆  
Emperor Sunjong's Autograph 10p
- 2 순명효황후 어필 純明孝皇后 御筆  
Empress Sunmyonghyo's Autograph 11p
- 3 순종비 순정효황후 휘지 純宗妃 純貞孝皇后 徽旨  
Empress Sunjeonghyo's Royal Edict to found an Educational Institution of Women by the Government in Korea 13p
- 4 현종무신진찬도 8곡병 憲宗戊申進饌圖 八曲屏  
Folding Screen with a Painting of Banquet held by King Heonjong 16p
- 5 황후 적의 皇后 翟衣(재현복식)  
*Jeok-ui.* The Best Ceremonial Robe for Empress. Replica 23p
- 6 대수머리 수식 大首 首飾(재현수식)  
Various Hairpins Suited with the Big Wig 40p
- 7 남바위 煙帽  
*Nambawi.* Winter Hood 45p
- 8 토시 吐手  
*Tosi.* Wristlets 45p
- 9 원삼 圓衫  
*Wonsam.* Ceremonial Robe for Women 46p
- 10 당의 唐衣  
*Dang-ui.* Ceremonial Jacket 49p
- 11 당의 唐衣  
*Dang-ui.* Ceremonial Long Jacket 51p
- 12 단령 團領  
*Danryeong.* Official's Uniform with Round Neck 52p
- 13 양관 梁冠  
*Yangwan.* Ceremonial Hat Worn with Official Robes 54p
- 14 흄 牙笏  
*Hol.* Ivory Mace 54p
- 15 조복 朝服  
*Jobok.* Officials 's Ceremonial Court Attire 55p
- 16 활옷 華衣  
*Hwal-ot.* Embroidered Bridal Robe 59p
- 17 화각함 華角函  
*Hwagak-ham.* Storing Box of *Hwal-ot* Decorated with Ox-horn sheet 75p
- 18 삼회장저고리 三回裝赤古里  
*Samhoejang-Jeogori.* Bridal jacket 78p
- 19 웃치마 赤'여  
*Utchima.* Women's Ceremonial Apron 78p
- 20 당의 唐衣  
*Dang-ui.* Ceremonial Jacket 79p
- 21 당의 唐衣  
*Dang-ui.* Ceremonial Jacket 80p
- 22 당의 唐衣  
*Dang-ui.* Ceremonial Jacket 80p
- 23 당의 唐衣  
*Dang-ui.* Ceremonial Long Jacket 81p
- 24 민간원삼 圓衫  
*Wonsam.* Bridal Robe 82p
- 25 민간원삼 圓衫  
*Wonsam.* Bridal Robe 83p
- 26 갖저고리  
*Gat-Jeogori.* Fur-lined Jacket for Women 84p
- 27 장옷 長衣  
*Jang-ot.* Coat Style veil for Women 85p
- 28 단령 團領  
*Danryeong.* Ceremonial Robe for Bridegroom 86p
- 29 원삼 圓衫  
*Wonsam.* Bridal Robe 87p
- 30 활옷 華衣  
*Hwal-ot.* Embroidered Bridal Robe 88p
- 31 도투락댕기 道吐樂唐只  
*Doturak-Daenggi.* Ceremonial Hair Ribbon for Bride 91p
- 32 고이댕기  
*Goi-Daenggi.* Ceremonial Hair Ribbon for Bride 93p
- 33 고이댕기  
*Goi-Daenggi.* Ceremonial Hair Ribbon for Bride 93p
- 34 고이댕기  
*Goi-Daenggi.* Ceremonial Hair Ribbon for Bride 94p

- 35 앞댕기 唐只  
*Ap-daenggi.* Ceremonial Hair Ribbon for Bride 95p
- 36 진주댕기 唐只  
*Jinju-Daenggi.* Ceremonial Hair Ribbon for Bride 96p
- 37 쪽댕기  
*Jjok-daenggi.* Hair Ribbon for the Chignon 97p
- 38 화관 花冠  
*Hwagwan.* Ornamental Coronet 100p
- 39 화관 花冠  
*Hwagwan.* Ornamental Coronet 101p
- 40 옥로정자 玉鷺頂子  
*Okro-jungja.* Hat Ornament with White Heron and Lotus Leaf Design 102p
- 41 동곳 · 관자 貴子  
*Donggot · Gwanja.*  
Hairpin placing a Topknot Cover. Silver Buttons holding Men's Headband,  
*Manggeon*, with Dragon Design. Gilt. 103p
- 42 상투관 上套冠  
*Sangtu-gwan.* Decorative Topknot Cover 104p
- 43 굴레보관함  
Container and Stand of *Gulle*. 106p
- 44 굴레  
*Gulle.* Children's Embroidered Bonnet for Winter 110p
- 45 조바위  
*Jobawi.* Women's Bonnet for winter 111p
- 46 족두리 簇頭里  
*Jokduri.* Ceremonial Coronet decorated with Jewellery 112p
- 47 족두리 簇頭里  
*Jokduri.* Ceremonial Coronet decorated with Jewellery 113p
- 48 족두리 簇頭里  
*Jokduri.* Ceremonial Coronet decorated with Jewellery 115p
- 49 산호매화잠  
*Binyeo.* Hairpins with Plum Blossom Design. Coral. 118p
- 50 비취 민비녀 · 귀이개 뒤꽂이 翡翠簪 · 翡翠耳子簪  
*Binyeo.* · *Gwiigae.* Hairpin · Ornamental Earpick Hairpin. Green Jade. 120p
- 51 비취잠 翡翠簪  
*Binyeo.*  
Ordinary Hairpin and Hairpins with Birds and Plum Blossom Design. Green Jade 121p
- 52 백옥잠 白玉簪  
*Binyeo.*  
Hairpins with Bamboo, Plum Blossom, Pomegranate Design. White Jade 122p
- 53 은파란매죽잠 銀瑛珊瑚梅竹簪  
*Binyeo.*  
Hairpin with Bamboo and Plum Blossom Design. Coral. Silver and Enamel 124p
- 54 은파란 호두잠 銀瑛珊瑚杏仁簪  
*Binyeo.*  
Hairpin with Walnut-shaped Head. Coral. Silver and Enamel 124p
- 55 은파란 매죽화문잠 銀瑛珊瑚梅竹花紋簪  
*Binyeo.*  
Hairpin with Bamboo, Plum Blossom Design. Coral. Silver and Enamel 126p
- 56 용잠 · 은파란죽잠 龍簪 · 銀瑛珊瑚竹簪  
*Binyeo.*  
Hairpins with Dragon Design. Gilt. Hairpin with Bamboo Design. Coral. Silver and Enamel 127p
- 57 편잠 瓔塔簪  
*Treoljam.* Hairpin with Fluttering Ornaments 130p
- 58 장잠 長簪  
*Jangjam.* Long-Hairpin. Jade. Silver and Enamel 134p
- 59 원잠 圓簪  
*Wonjam.* Hairpin with Pearls Decoration 134p
- 60 지환 指環  
*Jihwan.* Rings. Silver, Brass, Copper 138p
- 61 도금투호삼작노리개 鎏金投壺三作佩飾  
*Samjak-Norigae.* Pendant with Three Ornaments in Jar Shape. Gilt 142p

- 62 실슬노리개 佩飾  
*Silsul-Norigae.* Pendant with Three Ornaments and Yarn Tassels in Three Colors. Coral. Malachite. Jade 143p
- 63 대삼작노리개 大三作佩飾  
*Daesamjak-Norigae.* Large Pendant with Three Ornaments. Amber. Jade. Coral 145p
- 64 대삼작노리개 大三作佩飾  
*Daesamjak-Norigae.* Large Pendant with Three Ornaments. Amber. Jade. Coral 146p
- 65 대삼작노리개 大三作佩飾  
*Daesamjak-Norigae.* Large Pendant with Three Ornaments. Jade. Coral. Amber 147p
- 66 은파란투호삼작노리개 銀琺瑯投壺三作佩飾  
*Samjak-Norigae.* Pendent with Three Ornaments in Jar Shape. Silver and Enamel 148p
- 67 은파란삼작노리개 銀琺瑯三作佩飾  
*Samjak-Norigae.* Pendent with Three Ornaments. Silver and Enamel 149p
- 68 은파란삼작노리개 銀琺瑯三作佩飾  
*Samjak-Norigae.* Pendent with Three Ornaments. Silver. Enamel 150p
- 69 삼작노리개 三作佩飾  
*Samjak-Norigae.* Pendent with Three Ornaments. Jade. malachite. Amber. Silver. 151p
- 70 금파삼작노리개 錦貝三作佩飾  
*Samjak-Norigae.* Pendent with Three Ornaments. Amber 152p
- 71 밀화삼작노리개 蜜花三作佩飾  
*Samjak-Norigae.* Pendant with Three Ornaments. Amber 155p
- 72 호박삼천주노리개 琥珀三珠佩飾  
*Norigae.* Pendant with Three Balls and Beads on One Strain. Amber 156p
- 73 옥향갑노리개 玉香匣佩飾  
*Hyanggap-Norigae.* Pendants with Incense Case. Jade 158p
- 74 은제 공작 노리개 銀製孔雀佩飾  
*Norigae.* Pendant with an Ornament in Peacock Shape. Silver 161p
- 75 은제 나비 노리개 銀製蝴蝶佩飾  
*Norigae.* Pendants with an Ornament in Butterfly Shape, Silver 162p
- 76 은제 방아다리 노리개 銀製方아다리佩飾  
*Norigae.* Pendant with an Ornament in Mill Pestle Shape. Silver 162p
- 77 은제 장도 노리개 銀製長刀佩飾  
*Norigae.* Pendant with a Dagger. Silver 163p
- 78 은제 니사향갑 노리개 銀製泥絲香匣佩飾  
*Norigae.* Pendant with an Incense Case. Silver 164p
- 79 은제 범발톱 노리개 銀製虎爪佩飾  
*Norigae.* Pendant with an Ornament with Stylized Tiger Claw. Silver 164p
- 80 은제 용장식 노리개 銀製龍文佩飾  
*Norigae.* Pendant with an Ornament with Stylized Dragon Head. Silver 165p

‘아름다운 시작’에 도움을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일암관(신성수 회장님) · 오륜대 한국순교자박물관 · 삼성미술관 리움  
이남주님(45회 동문) · 김종학님 · 서정기님

